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ear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 12월 31일 이후 보스톤 한인회장 공석

**현임 김경원 회장 "연임 않겠다, 올해 공식임무 마감"**  
11월 18일 한인회장 등록자 없어, 심지어 추천도 전무  
과거 한인회 임금소송, 세금보고, 적자누적 모두 해결  
"5-6개월 이내로 제2김경원 안타나나면 한인회 해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톤 한인회 기능이 내년 1월1일부터 정지될 예정이다. 지난 11월 18일 한인회장 등록 마감일까지 한인회장 임후보자가 단 1명도 없었고 손을 놓겠다는 현 한인회장의 입장이 맞물린 결과다.  
김경원 회장은 23일 "한인회장 임기는 12월 31일로 마감되며 이후 한인회장 공식 업무는 중단하겠다. 다만 3월까지 세금보고 행정처리까지만 마무리하겠다" 고 결연히 밝혔다.  
현행 회장이 업무를 중단하는 것은 사실상 한인회 간판을 내리겠다는 것에 다름없다. 한인회를 움직이는 임원진들도 회장의 임기와 동시에 끝나며 한인회 고정 유급직

원이 없는 상태다. 사실상 한인회는 한인회장 후보라는 호흡기에 의존한 식물상태로 전락한다.  
한인회장 임후보자가 없어 이사회 지명 또는 추천으로 한인회장이 결정된 것은 한두번이 아니다. 지난 2008년에도 임후자가 없어 이사회가 추천한 7명의 후보중에 유일하게 수락한 유한선 회장이 2009년부터 4년간 재임했다.  
뒤를 이은 2012년에도 임후보자가 없어 이사회에서 추천한 한선우 회장이 이를 수락 회장직을 맡았다. 2014년에도 임후보자가 없었으나 한선우 회장 2015년 5월 김경원 회장이 수락하기 전까지 임시회장 대행을 맡았다.

그간 한인회장 출마자가 없었던 이유는 임금미지불 소송건, 세금보고 누락건, 한인회보 적자 누적건 등 전대 한인회장에서부터 물려받아야 하는 악재가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자발적으로 나서 선거를 통해 당선되기 보다는 한인회장들은 마지못해 수락한 수동적 입장이었다. 게다가 과거부터 내려오던 악재를 해결하기도 어려워 한인회 운영은 더욱 어려웠다.  
한인회가 한인들의 권익과 한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한인회 회칙 제 1조의 기본적인 사명을 담당하기 보다는 행사를 진행하는 한인회로 근근히 맥을 이어왔다. 결국 한인들의 삶과 괴리된 한인회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현 주소다.  
김경원 회장은 "한인회가 왜 있어야 하는지, 한인회장은 왜 뽑아야 하는지 근본부터 물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한인들 모두가 각자 각개 전투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한인회장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한인회장)니가 알아서 일하고 나는 내대로 일한다. 이런 문화 형성이 >>2면으로 계속



11월 22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라 힐리 법무장관

### 혐오 범죄 핫라인 개설 일주일만에 400여건

매사추세츠 인종, 이민자 차별 등 혐오범죄 예외지역 아니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세벽 기자 = 진보라는 의미의 블루 스테이트로 분류되는 매사추세츠도 뿌리깊은 차별 및 혐오범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오히려 미 전역과 비교해 손색이 없을 정도의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웨스트 스프링필드의 푸에르토리칸 커플은 차안에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메모를 담은 쪽지를 발견했다. 밀포드 지역에는 KKK(Ku Klux Klan)의 >>2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만행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a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MBN 런칭 기념 가입할인 혜택!



**TBO**  
리모컨 제어

- 신규가입 고객 \$39.99 → \$29.99
- 케이블 TV에서 티보플레이로 전환하시는 분께 드리는 혜택!
- \$29.99 + 1달 추가 무료 이용
- 1. 1년 유료링크 상시연락 -도

617-955-9112

Dr. 닥터스통증병원

"통증" 참지 마세요  
해답은  
닥터스통증병원에서!



대표원장  
Dr. Chang Yoon, DPT  
브룩라인(하나병원) 원장  
Dr. Miran Kwon, DPT

교통사고/학생보험/닥터노트/여행자보험  
울스톤 크리닉  
617.731.1001  
브룩라인 크리닉  
617.566.1199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제이슨 전 Realtor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JEI 재능교육



JEI English JEI Reading & Writing  
JEI Math JEI Problem Solving Math

www.jelearning.com

JEI Burlington  
11 Adams St. Burlington, MA 01803  
TEL: 781.362.9777  
EMAIL: Burlington@jelearning.com

# “한인회관, 차기 한인회에 돌려줘라”

▶▶1면에 이어서

되어 있다.” 고 지적했다.

김회장은 지난해 5월 한인회를 활성화해 적극적인 활동을 해보고 미련없이 임기를 마치겠다는 각오로 한인회장직을 맡아 시작했다. 보스톤시 한국의 날 제정, 보스톤커먼 한인축제, 500명이 넘는 한인회 파티 등 눈에 띄는 역할을 했지만 정작 확인한 것은 싸늘한 보스톤 한인사회의 반응이었다. 김 회장이 “한인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김회장은 “한인 회장을 시헛말로 ‘호구’로 본다. 한인사회에서 한인회장 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낮은가, 왜 뽑아 냈는지 모를 정도로 무관심하다.”고 진저리를 쳤다.

일상 생활에 바쁜 한인들로서는 한인회는 1차적 관심사가 아니다. 한인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현재의 삶에 지장이 있는 한인인은 없다. 김경원 회장의 말대로 그대로 해체해서 그 필요성을 다시 깨닫게 해야 한다는 것도 일리가 있다. 다만 1953년에 만들어져 현재 까지 명맥을 이어 내려온 한인회가 지금도 존재 이유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는 것은 서글프다.

김회장은 “한인회장 업무는 앉겠지만 한인회장 찾기는 계속할 것이다. 제 2의 김경원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며 희망적인 의사를 밝혔다. 그러기 위해

서 다음 한인회장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것을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남아있는 한인회보 빛 3천여불은 자신의 임기 마감과 함께 해결할 계획이다. 깨끗한 한인회를 남겨 주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는 것이다. 그러면 “5-6개월 이내에 책임자가 나타날 것이고 그래도 아니면 한인회는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마지막으로 한인회관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질문했다. “한인회가 활용하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자기들(한인회관 재산관리위원)이 만들어 놔서 자기들이 갖고 있겠다고 한다면 있으니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자신의 임기 때는 차마 달라고 못했지만 다음 한인회장에게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인회가 한인회관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도록 해 남는 이득금으로 한인회를 운영하고 기관 단체장들도 지원하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회



오는 12월 31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김경원 현 보스톤 한인회장

장의 말이다. 김회장은 “한인회관 한인회에 돌려줘라, 아니면 팔아서 기부한 사람들에게 돌려주자”고 강하게 주장했다.

현재 우번 캠벨 스트리트에 소재한 한인회관은 한인회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한인회도 사용하지 않으니 한인들의 사용도 요원하다. 한인회에서 그토록 염원했던 한인회관이지만 한인들의 이용은 전무한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다. 한인회관의 존재를 알고 있는 한인도 얼마 없다. “이럴려고 한인회관 건립했나”하는 자괴감이나 관심마저도 대부분 한인들에게 사치다.

editor@bostonkorea.com

## MA 혐오범죄 기승 한인들도 주의

▶▶1면에 이어서

신문인 더 크루세이더(The Crusader)로 도배가 될 정도로 깔렸다.

랜돌프에서 흑인 여성과 아들은 백인 커플이 “원래왔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외치는 바람에 길을 벗어날 뻔했다. 애틀보로 하이스쿨의 화장실 벽에는 인종차별 욕설과 KKK를 찬양하는 문구로 낙서가 이뤄졌다.

이 사건들은 매사추세츠 법무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설치한 혐오범죄 핫라인을 개설한 후 일주일만에 접수된 400건의 신고전화의 일부다. 모라 힐리 법무장관실은 인종, 국적, 종교, 성적취향 등에 기초한 따돌림, 협박, 공갈, 희롱 등의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 전화 접수에 따라 법무부는 경찰의 협조를 바탕으로 가능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라 힐리 법무장관은 11월 22일 기자회견에서 “법무부는 편견에서 유발된 협박과 학대,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역 경찰, 지역 검찰청 그리고 주 법무부 인권부서가 협력하여 이 같은 사건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혐오범죄 핫라인은 지난주 14일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인종, 국적, 종교, 성별, 성적취향, 이민 등을 이유로 협박이나 학대를 당할 신고를 접수하도록 설치됐다. 지난 대선 이후 인종 차별, 이민자 차별 범죄가 급증했으며 미국 전역에서 주요 이슈로 떠올랐었다.

현재 핫라인은 영어뿐만 아니라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리고 기타 비영어권 언어가 가능한 직원들이 신고를 받고 있다. 핫라인 전화는 800-994-3228이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하다.

<http://www.mass.gov/ago/consumer-resources/your-rights/civil-rights/civil-rights-complaint.html>

hsb@bostonkorea.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 달러 강세에 지갑 얇아진 유학생들, 추수감사절 어떻게 보내나

가족, 친척, 친구와 함께, 올해 보스톤에 남은 사람 많아  
달러화 강세에 생활비 아끼자, 뉴욕 등 근거리 여행 늘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보스톤에 있는 유학생들은 이맘때쯤이면 가장 외로움을 느낀다고 호소한다. 유학생들은 짧은 시간에 돌아갈 고향도 없고, 대부분의 상점, 식당들이 문을 닫아 혼자서 홀로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친구도 수업도 없이 쓸쓸히 시간을 보내느니 여행을 떠나는 사람부터 보스톤에 홀로 남아 자기 할 일을 하는 학생들까지 팽스기빙을 보내는 모습은 다양하다. 올해는 높아진 달러강세로 지갑이 얇아진 주머니 사정과 더불어 적지 않은 대학들이 기숙사 체류료 허용함에 따라 많은 유학생들이 보스톤에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원생 차성호 씨는 올해 팽스기빙을 뉴욕에서 보낼 예정이다. 그는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처럼의 팽스기빙을 보스톤에 남아있기가 아쉬워서 가까운 뉴욕에 2박3일 일정으로 다녀올 예정이다. 차 씨는 “주변 외국 친구들 중에서는 푸에르토리코나 멕시코에 다녀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달러 가치가 갑자기 높아져 선뜻 여행가기 겁난다” 며 장거리 여행은 다음으로 미뤘다.

차 씨와 달리 버클리 음대생인 한선우 씨는 올해에는 보스톤에 남아있기로 결정했다. 12월 초까지 완성해야 하는 과제가 많아 여행 갈 짝

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씨는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다면 50달러 내외로 구매할 의향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쇼핑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서퍽대학의 새내기 이지수 씨도 첫 팽스기빙을 보스톤에서 보낼 예정이다. 이 씨는 “환율이 올라서 그런지 뉴욕 정도의 근거리로 여행을 가는 친구들이 많다” 며 “보스톤에서 처음 맞이하는 팽스기빙인 만큼 올해는 보스톤에서 검소하게 보내고 싶다” 고 밝혔다.

한 씨와 이 씨처럼 보스톤에 유학생들이 남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팽스기빙 기숙사생 퇴거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서퍽대학의 경우 퇴거할 수 없는 이유를 서류로 제출하면 기숙사에 그대로 머무를 수 있다. 보스톤대학(BU)의 경우 보스톤에 남은 학생들을 홀리데이 인을 비롯한 주변 호텔들과의 협약을 통해 수용해 왔지만 작년부터는 학생들이 기숙사에 남아 생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조지아 주립대학에 재학 중인 김동균 씨는 짧은 휴일을 맞아 보스톤에 있는 부모님을 방문해 팽스기빙을 보낼 예정이다. 김 씨는 “학교에서 팽스기빙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팽스기빙은 역시 가족들과 함께 칠면조를 먹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짧은 연휴지만 보스톤으로 돌아왔다” 고 말했다.



높아진 달러환율과 기숙사 체류 허용 정책으로 인해 올해 팽스기빙에는 보스톤에 체류하는 한국 유학생들이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사진은 BU 학생들)

가족이 없는 유학생들은 미국 내에 친척을 찾는 경우도 있었다. 유학생 김지혜 씨는 매년 팽스기빙에는 가족들 대신 이모댁에서 팽스기빙을 보내왔다며,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답했다. 김 씨는 “블랙 프라이 데이 때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낼 선물로 4~5백 달러정도 돈을 크게 쓸 것 같다” 고 말했다.

가족도 친척도 없는 학생들은 친구를 만나기도 했다. 양이영 씨는 “방학 때도 학생들이 제각기 인턴이나 여행 등으로 바빠서 다른 주에 있는 친구를 만나는 게 어려웠다” 며, 이번 팽스기빙에는 로드아일랜드 주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갈 예정이라 밝혔다. 양 씨는 브라운대학에 다니는 친구를 만나 여고생 시절로 돌아가 오랜만에 수도도 떨고 쇼핑도 할 예정이다.

미국 대학으로의 입시를 준비 중인 고등학생

들에겐 팽스기빙은 휴일이 아니다. 고교 시니어인 권지연 양은 팽스기빙 휴일 동안 홈스테이 집에 남아 대학입학에 필요한 에세이를 쓸 예정이다. 권 양은 “주로 집에서 머물 예정이지만, 쇼핑장에서 쇼핑을 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도 풀 예정” 이라고 밝혔다.

고교 졸업 후 갭이어를 보내고 있는 김예나 씨도 올해 팽스기빙은 친구들과 조촐하게 휴일을 보낼 예정이다. 김 씨는 “교회에 다니는 한국 친구들은 교회 사람들이 저녁에 초대하여 함께 저녁식사를 한다며 팽스기빙과 같은 휴일에는 타지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더 큰 법인데, 이런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는 같은 처지의 한국 사람들과 보내는 것이 제일인 것 같다” 고 전했다.

itshunne@bostonkorea.com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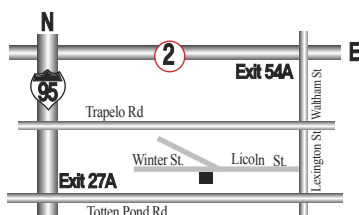
## SAT Plus Fall Schedule 2016

Saturday Class Start September 10, 2016

Class	Time	
PSAT / SAT prep	9:00 AM – 11:00 AM	11th Grade
SAT prep	11:30 AM – 1:00 PM	10th Grade
SAT prep	1:30 PM – 3:00 PM	9th Grade
SAT I prep	4:00 PM – 6:00 PM	12th Grade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 하버드 크림슨 신문사 대표 데릭최 선출

144대 하버드 크림슨 신문 임원진 이끄는 대표 역할  
한국계로서는 142대 대표 스티브리에 이어 두번째  
그동안 신문 디자인 에디터 및 사설 집필진으로 활약



데릭 최(3년)는 내년부터 144대 하버드 크림슨 임원진을 이끌게 된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한인 3세인 데릭 최(하버드 대 3학년)군이 하버드 대학의 일간 신문인 하버드크림슨의 대표로 선출됐다.

하버드 크림슨의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노스브룩출신의 경제학 및 행정학 전공의 최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뽑힌 144대 하버드크림슨 임원진(144th Guard of The Harvard Crimson)을 이끄는 대표(President) 역할을 맡게 된다.

최군은 기숙사인 레버렛 하우스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크림슨에서 디자인 및 사설집필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 최군은 한 학기동안 디자인 부서를 운영하며 매일 신문 편집 디자인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그는 2학기동안 사설집필진으로서 몇몇 사설을 쓰기도 했다.

하버드 크림슨은 현 대표인 마리엘 클라인은 “이번 편집진은 아주 특별한 헌신적인 리더들이다. 나는 144대 임원진이 내년에는 크림슨을 더욱 더 나은 지평으로 이끌 것을 확신한다” 고 밝혔다.

다음 임원진으로 크림슨의 편집국장인 신문자 기자였던 앤드류 두렌이 담당해 크림슨의 일간신문, 매거진 그리고 아트섹션과 블로그 등을 관할 감독하게 된다. 그는 현재 크림슨의 기자로 하버드 드루 파우스트 총장과 하버드 중앙 행정교무처를 취재해왔다. 경영매니저는 크리스토퍼 허가 맡아 신문의 재정과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하버드는 차기 임원진을 소위 터키 슈트(Turkey Shoot)라 불리는 선출절차를 통해 선출한다. 이는 모든 현임 임원진들이 참여해 투표하며

모든 직의 후보들은 최소한 75%이상의 표를 득표해야만 선출될 수 있다.

하버드크림슨은 1873년에 창설됐으며 하버드가 소재한 케임브리지시에서는 유일한 일간지이다. 미국내 가장 오래된 현행 대학신문이기도 하다.

지난 2014년 142대 임원진 선출에

서 한인 스티브 리가 최초의 한인 대표(president)로 선출된 데 이어 최군이 두 번째 편집인이다. 지난 2009년 한인 여학생 이인혜씨가 편집국장(Managing editor)에 뽑히기도 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옆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김시훈 Sihun Kim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제휴업체 | 연합뉴스 | 미션협 회원사 | 세한인 회원사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우수감시명 달이 **우리가족**  
**면역력 지킴이** 대잔치  
11월 7일 ~ 25일 까지 (18일간)

**잔치 1**  
홍삼콘골드 / 콘마일드 / 홍한용 / 화에막 구입시  
천녹삼 30g 2개 **FREE GIFT**  
무료증정 (\$70 상당)

**잔치 2**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50g **무료증정**

**잔치 3** 동인비 출시 후 가장 큰 프로모션!!  
동인비 전제품 **30% OFF**

**잔치 4**  
자녀용 제품 구입시  
아이키커 2세트 **무료증정**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전화 무료 781-238-0303 **FREE \$100 이상 구입시 무료배송**

# 나에겐 "안되면 어쩌나"란 없다

한국계 보스톤 출신 할리우드 스타 지망생  
미카일라 캠벨, 신인배우로서 할리우드 생존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TV쇼나 영화 또는 광고에서 미카일라 캠벨(23)이란 이름을 마주치면 다시한번 주시할 필요가 있다.

보스톤 서쪽 30분 거리에 있는 피치버그 출신이자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 그 한 측면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연기자가 되기 위해 철저한 훈련과 피나는 노력을 거치며 꿈을 향해 한걸음씩 뚝뚝 자기 길을 가는 그가 분명 할리우드 꿈을 갖는 자녀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할리우드에서 배우이자 가수의 커리어를 걷고 있는 미카일라 캠벨(23)은



캠벨의 아버지 밥 캠벨

이번 가을 디스커버리 채널의 <트루 나잇메어스>와 라이프타임 채널의 <마이 헌티드 하우스> 두 TV쇼에 출연한다. 내년부터 방영될 TV쇼 <새시 브리티시 할리우드 퍼블리스트>에서 자주 출연하는 역할을 지난 봄 활영했다.

신인 배우로 이런 역할에 캐스팅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올해로 할리우드에 진출한지 3년 반째 되는 캠벨은 매일 좀더 나은 배우가 되기 위해 요가, 서킷 트레이닝 대본 읽기 등으로 단련한다. 또한 노트패드들 통해 될 수 있는 한 많은 영화를 본다.

캠벨은 보스톤 서부지역의 신문 센테니얼 엔터프라이즈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일반인들처럼 앉아서 영화를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캠벨은 이 영화를 보면서 배우들이 각 장면에서 어떻게 제대로 연기하는지 또는 연기를 제대로 못하는지 보고 자신이라면 어떻게 연기할지를 고민한다.

유명 배우가 아닌 그의 생활을 그리 화려하지만은 않다. 각종 쇼 출연으로 충분하지 않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영화작업 중간중간에 레스토랑에서 웨이 추레스로 일한다. 가끔씩 모델일도 하며 비즈니스 컨벤션의 스태프 일도 한다.

이것도 모자란 경우는 가끔 부모 밥 캠벨과 수잔 캠벨에게 손을 벌리기도 한다.

특히 할리우드 지망생들이 밤 유희에 정신이 팔리거나, 9-5정규직장을 부러워 하고 잘못된 이성 관계로 인해 결국 포기하는 것을 보아왔다. 가끔씩 밤에 나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긴 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습관으로 남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늘 캐스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디션을 보기까지 몇 주에서 몇 달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는 그 중간에도 꾸준히 다른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하루 아침에 행운이 찾아오는 세렌디피티 같은 일이 할리우드에서 일어나기 보다는 꾸준한 연기연습과 헌신적인 자세가 자신의 할리우드 커리어에서 초석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캠벨은 초등학교 때부터 연기를 시작했다. 피치버그 소재 예술학교인 BF Brown에 다니면서 연기에 사로잡혔다. 로컬 TV에 출연하는 등 몇몇 역할을 하기도 했다. 피치버그 하이스쿨에서 학교 TV방송반 활동을 했다. 아침 방송 프로그램 및 학교 스태프들과 비디오 인터뷰를 진행기도 했다. 고교 주니어, 시니어 학기에는 내틱의 월넛스쿨



할리우드에서 배우이자 가수의 커리어를 걷고 있는 미카일라 캠벨(23)

오브아츠에 다녔다. 이후 뉴욕과 LA 소재의 아메리칸 뮤지컬엔드라마틱스 아카데미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녀는 다시 영국의 드라마 및 연설 로열 센트럴 스쿨에 입학해 연기를 공부했다. 세계에서 18명만 선발하는데 그중의 한명으로 선발된 것이다. 2년간 연기 공부를 하며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캠벨은 "어느 한 특정역할에 매몰되는 것보다는 여러가지 역할을 소화하는 배우가 되고 싶다" 고 밝혔다.

특히 오만과 편견 또는 게임오브 쓰론스 등에 출연하고 싶은 것이 그녀의 꿈이었다. 이 영화의 의상, 촬영 장소 등을 좋아한 것이 영국으로 연기 유학을 떠난 중요한 이유가 됐다. 영국 유학으로 그는 영국엑센트를 완벽하게 구사한다. 미국인은 물론 영국인들도

그가 영국출신인줄로 오인할 정도다.

캠벨의 아버지 밥 캠벨은 한국, 스코틀랜드, 그리고 스페인 혈통이 섞였으며 어머니 수잔은 그리스와 핀란드 혈통이 섞였다. 그러한 그녀의 생김새로 충분히 할리우드의 니치 마켓을 뚫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녀의 생김새에서 비록 아시안 같은 느낌이 없지만 스페인 계통의 느낌이 있다.

비록 쉽지않은 할리우드 커리어이지만 그는 이를 즐기고 있다. 출발이 나쁘지 않고 지금까지는 최소한 잘 나가고 있다. 캠벨양은 "실패는 결코 답이 아니다. 나에게겐 전혀 백업 플랜이 없다. 또는 결코 배우로 성공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를 하지 않는다" 며 배우로서의 커리어를 위해 달린다.

hsb@bostonkorea.com



**Frank Y. Shin, DMD**  
현 **Tofts** 치과대학 부교수



##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http://www.drfrankshin.com)

#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업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입니다.



**업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가 11월 19일 개최한 2016년도 한글동화구연 및 동시암송 대회 단체 사진

# 어린 학생들 또렷한 발표 "정말 대견하고 놀라웠다"

주옥같은 시구와 재미난 동화로 열린 초겨울 아침 뉴잉글랜드한국학교 자체 동화구연 및 동시대회 동화 전체대상 전혜린, 동시 전체대상 이준호 수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11월 19일 2016년도 한글동화구연 및 동시암송 대회를 개최, 발표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한글을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긴장된 모습으로 자녀의 발표 모습을 지켜보던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이야기 구연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동시 암송 발표에서는 또렷하게 낭송하는 시를 즐기며 환호했다.

고급과정 학생들의 여러 주옥같은 시낭송에 이어 진행된 기초 및 초급 참가자들은 해맑고 따뜻한 느낌의 동시들이 낭송되자 한 학부모는 "마치 다양한 시낭송회에 참석하듯 한 느낌을 받았고 감회가 새롭고 기쁜 마음 가득 담았던 시간" 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회 동화구연부문 전체대상은 <야들야들 다 익었을까?>를 구연한 고려란의 이혜린 학생이, 동시부문 전

체 대상은 문삼석 시인의 <개구쟁이>를 암송한 백제1반 이준호 학생이 차지했다.

동화구연부문 대상은 <삼년고개>를 구연한 백제1반 정윤현이 수상했다. 4개분야로 나뉜 동시암송부문에서 <우리 엄마인가요>를 암송한 이주하(해님반), <해님달님의 숨바꼭질>을 암송한 전지유(금도끼반), <5학년의 꿈>을 암송한 진승범(백제2반), <이별노래>를 암송한 황선유(한라반)학생이 각각 대

상을 받았다.

한편, 백두반 학생들은 한글창제 배경과 우리가 한글을 왜 배우고 지켜야 하는지를 <구룡이 나르샤>라는 창작 단편극으로 발표해 심사위원이 뽑은 최고 인기상을 수상했다. 참가한 모든 학생들도 각 부문별로 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박신영 이사, 오인식 나의꿈국제재단 이사 및 양원미 학부모회 부회장이 심사를 맡았다. 양원미 부회장은 심사평을 통해 "고급과정 학생들의 발표도 참 인상적이었고, 어린 학생들도 짧지 않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각 구절구절을 어찌면 저렇게도 또렷또렷하게



<해님달님의 숨바꼭질>을 암송하고 있는 전지유(금도끼반) 학생

잘 외워서 발표하는지 '정말 대견하고 놀라웠다' 고 말하고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께 감사한다" 고 밝혔다.

이번 대회 발표모습 동영상과 사진, 자세한 수상자 명단은 홈페이지(www.ksneusa.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다음 행사는 오는 12월 10일 한국역사교육을 위한 역사골든벨 예선대회가 있고, 17일

에는 제 16회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동요대회를 갖는다. 2주 간의 겨울방학 후 2017년 1월 7일부터 수업이 재개된다. 재학생 및 신입생들의 2017학년도 입학기 등록은 1월 7일부터 시작되며 2세 교육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자 하는 분과 등록 문의는 남일 교장(전화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또는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hsb@bostonkorea.com



미국 외교관으로 재직중인 아그네스 남선배 초청 강담회

## 선배 경험 통해 한글과 역사교육 중요성 듣는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2세 청소년 한글교육 동기유발 프로젝트 제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재외동포재단의 맞춤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한글교육 동기유발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다.

한인 2세대 중 특히 중등학년 이상의 한국학교 고학년 진학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선배들의 경험을 통해 한글과 한국 역사 문화를 제대로 배워 사회에 진출했을 때 얻는 효과와 영향을 교육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표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교사회는 "2세 청소년들이 한글교육과 한국 역사 및 문화교육에 보다 적극적이면서도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던 중 이번에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시도하게 됐다." 고 밝혔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남일 교장은 "한국학교에 다닌 경험이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은 물론 사회에 진출해 있는 한인 2세들을 인터뷰하거나, 초청강담회를 통해 선배의 경험을 듣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작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제작된 동영상은 학교 홈페이지와 재외동포재단의 스튜디오 리안 등에 공개하여 보스톤은 물론 타지역의 한글학교들과 자료를 함께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말했다.

첫 번째 초청강담회는 오는 12월 17일로 계획하고 있고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하다. 문의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전화 508) 523-5389 이 메 일 주 소 Ksneusa@verizon.net

bostonkorean@hotmail.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 기초과학연구원 보스톤서 인재포럼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국책 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IBS)이 11월 29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웨라톤 보스톤호텔 3층에서 인재포럼을 개최한다.

보스톤에서 개최되는 미국 재료학회 가을 미팅에 참가하는 기초과학연구원원은 이번 인재포럼을 통해 재료과학분야의 국내외 신진 연구자들에게 기초과학연구원을 홍보하고 재료과학분야 주요 연구단 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원은 연구단 내 채용정보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번 인재포럼에는 첨단연성물질연구단의 스티브 그레이닉 연구단장, 나노구조물리연구단의이호영 부연구단장, 나노의학연구단의 유동원 연구원

등이 참석해 각 연구단을 소개하고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기초과학연구원은 하인즈컨벤션센터 2층 허브홀 D에서 열리는 미국 재료학회 가을 미팅 기간(29-30일)동안 설치되는 커리어부스를 통해 연구단 현황자료등을 배포하고 자세한 내용을 안내한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인재포럼 참석을 원하는 경우 25일까지 까지 관련 웹사이트(www.ibsatmrs.eventbrite.com)를 통해 참가신청을 해줄것을 당부했다.

기초과학연구원 인재포럼  
행사명 : IBS Career Opportunity Reception@MRS (IBS@MRS)  
일시 : 2016년 11월 29일 화요일,



19:00 - 21:00  
장 소 : Sheraton Boston Hotel, Fairfax A (3F) (39 Dalton St, Boston, MA 02199)  
(간단한 다과 제공)  
bostonkorean@hotmail.com



작년 브루클라인 소재 보스톤한국학교에서 열린 어린이 동요축제

## 한국학교협의회 어린이 동요 축제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 협의회가 주최하는 어린이 동요축제가 12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브루클라인 소재 보스톤 한인교회에서 열린다.

동요축제는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 (NAKS-NE) 한국학교 학생, 교사 및 학부모들이 참가할 수 있다. 참가는 각 지역 한국학교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

각 학교별로 최대 2팀(1팀이 한국씩) 씩 참가할 수 있다. 한팀만 참가할 경우 2곡까지 부를 수 있다. 전래 동요, 창작 동요, K-Pop 및 기타 한

국어로 된 모든 곡들은 발표곡으로 선정할 수 있다. 행사 후에는 참가한 모든 학생들에게 소정의 선물이 주어질 예정이다.

동요축제는 어린이들에게 한글로 된 동요를 널리 알리고 맑고 고운 동심을 키우기 위한 취지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동요축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홈페이지(www.naks-ne.org)를 통해 알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한순용 협의회 회장(soonyhan03@gmail.com) 혹은 박지예 총무(jiae@live.com)에게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 버클리 드러머 조셉서 재즈 공연 12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버클리에 재학중인 재즈 드러머 조셉서와 재즈 플루티스트 하나 김의 재즈 공연이 12월 1일 오후 1시 버클리대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에에서는 스탠다드 재즈와 브라질 음악과 접목한 재즈 그리고 하나김씨가 편곡한 재즈찬양 <멀리 언덕위에서>도 연주된다.

재즈공연에 참가한 나머지 연주자들로는 브라질 출신의 베이스리스트, 기타리스트가 함께하며 뉴저지 출신인 기타리스트와 재즈 피아니스트 박세윤씨 등이 합세한다.

조셉서 학생은 “본격적인 겨울을 맞이하며 브라질 음악의 삼바, 보사노바, 쇼로, 바이웅, 같은 장르의 음악과 재즈를 접목해서 연주한다는 이 공연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잠시나마 바쁜



버클리에 재학중인 재즈 드러머 조셉서와 재즈 플루티스트 하나 김의 재즈공연이 12월 1일 오후 1시 버클리대에서 열린다

삶가운데 휴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02115  
The Red Room at Café 939  
출연: Berklee H&J Quintet  
bostonkorean@hotmail.com

## 김성군 변호사 NE한국학교 이민법 강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김성군 변호사가 12월 3일 토요일 오전 11시 40분 뉴튼 소재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 "최근의 이민법 특강"을 개최한다.

이날 강좌에서는 전반적인 가족/취업 영주권, 미국내 비자 체류변경, DACA 청소년 추방유예에 대한 자세한 이민법 설명과 질의응답 세

션을 갖는다. 추가 강좌에 대한 문의는 김성군 변호사 사무실 (781)438-6170 혹은 info@songkkimlaw.com 으로 할 수 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130 Wheeler Road, Newton, MA 에 위치해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크레딧 교정  
교통사고  
파산  
부동산 매매

교통사고/상해, 크레딧 교정/채무조정/파산보호  
부동산 매수자 용역/매매계약서작성/통기이전,  
비즈니스 매매/라스 작성, 세무/회계/IRS/DOR, 소송

전화: 781.712.1708 팩스: 781.712.2088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이메일: ohanglee781@gmail.com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시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역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onela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 일본 학생들이 고른 가장 맛있는 라멘 집

압도적인 지지로 산토카 1위, 토토리멘, 삿포로라멘 뒤이어 돈코츠, 지로계, 탄탄멘 등 가게마다 특색있는 주력메뉴 주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일본사람들이 외국에서 가장 그리워하는 음식은 무엇일까? 일본의 온라인 미디어 사이트 R25가 작년 8월 일본인 2~30대를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1위는 초밥, 2위에는 라멘이 꼽혔다. 지난 주 보스톤코리아 페이스 북에서는 Boston.com의 '보스톤에서 가장 주문배달이 많은 라멘집 Best 10' 을 기초로 '보스톤에서 라멘으로 가장 유명한 식당 10곳' 을 카드뉴스로 보도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기사에는 동남아나 중국식 국수를 파는 가게들이 대거 순위에서 빠져 많은 보스톤코리아 독자들의 반발이 있었다. 이에 독자들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하고자 보스톤 코리아에서 직접 라멘의 본고장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보스톤에서 가장 맛있는 라멘 집을 추천받았다.

1위 - 산토카 (Santouka), 일본 라멘 집과 가장 흡사한 맛

하버드 스퀘어와 뉴베리 스트리트에 위치한 산토카가 보스톤에서 가장 맛있는 라멘집이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일본 유학생 투표에서도 산토카는 38명중 35명이 1위에 꼽을 만큼 압도적이었다. 산토카는 일본에서 훗카이도의 6개점을 비롯한 전국 21개점, 그리고 미국에도 12개점을 보유하고 있고, 그 외에도 대만, 싱가포르, 캐나다에도 지점을 가지고 있다.

산토카의 가장 큰 장점은 일본 본토의 라멘과 가장 흡사한 라멘,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높은 진한 '돈코츠(돼지 뼈) 국물'을 기초로 한 라멘이라는 것이다. 돈코츠를 기본 육수로 거기에 시오(소금), 쇼유(간장), 미소(된장), 스파이스 미소(매운 된장)를 선택할 수 있다.

일본인 유학생 리나씨는 "돈코츠의 특유의 메뉴를 시키려면 시오 돈코츠 라멘을 추천한다

"고 말했다. 그는 "산토카는 라멘도 최고지만 덮밥종류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사케동(연어덮밥)은 다른 가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메뉴다"라며 극찬했다.

2위 - 토토 라멘(Totto Ramen), 닭뼈육수의 진한 맛

산토카가 압도적인 득표로 1위를 하고 그 뒤를 이은 라멘집은 토토 라멘이었다. 2010년 뉴욕에서 개업한 토토리멘은 뉴욕에서의 인기에 힘입어 2012년 봄 보스톤에 진출했다. 토토리멘은 진한 '토리가라 스프' (닭뼈 육수)로 울스턴의 터줏대감 피카이치(Pikaichi)를 밀어내고 보스톤니안들을 사로잡았다. 이런 인기로 힘입어 올해에는 써머빌의 어셈블리 로우(Assembly Row) 쇼핑몰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산토카의 돈코츠의 느끼함이 심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돼지뼈가 느끼하다고 느낀다면 토토리멘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인에게 익숙한 닭뼈를 육수로 사용한다는 점과, 고추기름을 넣은 매운맛 메뉴도 있다는 점이 그 이유다. 그러나 토토리멘은 "방문할 때 마다 맛의 편차가 있다"라는 점과 함께 "신용카드를 받지 않아 불편하다"는 불만도 많았다.



닭뼈 육수의 진한맛의 토토리멘은 2호점을 준비중이다



일본 유학생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산토카의 돈코츠 라멘

3위 - 삿포로 라멘(Sapporo Ramen), 저렴한 다양한 메뉴

보스톤 세 번째 라멘 집은 삿포로 라멘이다. 본점은 포터스퀘어의 레슬리대학 빌딩 안에 입점해 있지만, 보스톤니안에게 더 친숙한 곳은 분점인 H마트 캠퍼리지점 내 푸드 코트이다. 삿포로 순위로 꼽은 일본인들은 "다른 곳과 비교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메뉴"를 꼽았다.

실제로 삿포로 라멘은 다른 라멘집이 서너개의 라멘 메뉴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11개의

메뉴를 가지고 있다. 미소라멘이나 쇼유라멘은 기본이고, 김치가 토폰 된 김치라멘이나 카레라멘도 있고 그 가격은 10달러를 넘지 않는다. (포터스퀘어 본점 기준) 맛에 있어서는 대체로 "외국에서 먹기에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는 평이 많았다.

4위 유메 오 카타레 (Yume wo Katate) - 지로계 라멘의 진수

"지로계 라멘은 라멘이 아니다. 지로 그 자체다". 유메오 카타레는 한국인에게 다소 생소한 지로계 라멘을 팔고 있는 유일한 라멘집이다. 지로계 라멘이란 우리의 비빔국수마냥 국물이 적은 대신 맛이 기름기 있고 진한 라멘을 뜻하는데, 도쿄의 미타구에 있는 라멘집 '라멘 지로'가 그 효시이다. 유메오 카타레는 추수감사절 시즌에는 50m 줄을 서고 먹을 정도로 매니아 층 사이에서는 꽤나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유메오 카타레에 대해 지지층과 반대층이 극명히 나뉘었다. 유학생 잇센씨는 "진한 국물이 마음에 든다"며 "가게 분위기도 가장 일본라멘집" >>3면으로 계속



H마트(캠퍼리지 점)에 입점하여 친숙한 삿포로 라멘은 포터스퀘어 본점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어,우럭  
사시미에  
한잔 생각나시면  
오빠 스시로  
오세요

185 Harvard Ave. Allston

617 202 3808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exington, Waltham, Yonkers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Colliers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2면에 이어서  
에 가까운 느낌이라 자주 찾는다” 고 전했다. 반면 슈운씨는 “지금은 나아졌지만 예전에는 건더기가 면보다 더 많아 먹기 어려웠다” 며 “국물도 없는데 마늘 맛이 강해 고역이었다. 면도 짧고 율통불통한 수타면이라 입안으로 넘어가는 흡입감이 없어 아쉽다” 고 답했다.



라멘을 먹기 위해서 긴 줄을 감수해야 하는 유메오 카타레는 보통 라멘과 다른 지로계 스타일로 지지율이 극명하게 갈렸다

5위 간코 잇테츠 라멘 (Ganko Ittetsu Ramen)- 숨겨진 맛 집 라멘 탄탄멘이 주력

5위는 피카이치를 누르고 의외로 간코 잇테츠가 뽑혔다. 간코는 작년 가을 브룩라인에 소재한 아케이드 빌딩 (Arcade Building) 내에 연 작은 규모의 라멘집이다. 건물 밖에는 간판도 없어 미리 알고 있는 손님이 아니라면 우연히 찾기도 힘든 장소에 있다.

이곳의 주 메뉴는 미소, 쇼유라멘과 함께 탄탄멘(탄탄면)이다. 본래 탄

탄멘은 중국식 비빔국수의 일종으로 팡퐁기름에 고춧가루, 마늘을 볶고 비벼먹는 형식이지만, 이곳의 탄탄멘은 육수를 붓고 라멘식으로 즐기는 일본스타일로 되어있다.

켄지 씨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기도 하고 분위기도 아담해서 자주 찾는다” 고 말했다. 그러나 케이스케 씨는 “본래 탄탄멘에는 옥수수과 미역이 들어가지 않는다” 며 “현지화 과정에서 굳이 많은 재료를 넣으려고 하다가 본연의 맛을 잃은 것 같다” 며 아쉬워했다.

조사에 참여한 마리나 씨는 “짜장면이 한국인에게 소울 푸드라고 들었는데, 일본에서 값싸고 서민들의 애환을 함께 하는 음식은 라멘일 것이다” 고 말했다. 그는 “보스톤에 일식집이 많지만 일본적인 맛을 표현하는 곳이 드물어 일식을 먹으며 고향음식을 떠올리기 어렵다” 며 특히 “일본음식과 거리가 먼 라멘집이 순위에 뽑혔다는 것이 믿을 수 없다” 안타까워했다.

이번 조사에는 보스톤 일본인 유학생 연합, 서포대학고 일본인 학생회, 그리고 와세다 대학 교환학생 그룹이 총 38명이 협조해 주었다. 본 설문조사는 자신이 좋아하는 보스톤 지역 라멘가게를 1인당 3표씩 1, 2, 3위를 골랐으며, 각각 3, 2, 1점의 배점을 주었다.

itshunne@bostonkorea.com



일본식 탄탄멘을 맛볼 수 있는 간코잇테츠 라멘

# 뮤지컬 해밀턴, 부통령 당선자에 당부가 봉변이라니

해밀턴 배우, 이민자 불안하다 미국의 가치 지켜달라  
트럼프, 부통령 당선자 희롱, 무례했다. 불매운동도 지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토니상 수상작이며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잘나가는 뮤지컬 해밀턴이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해밀턴의 한 출연자가 부통령 당선자 펜스에게 한 ‘당부’ 가 갑자기 ‘봉변’ 으로 둔갑했기 때문이다.

11월 18일 금요일 부통령 당선자인 마이크 펜스가 딸과 함께 뮤지컬 해밀턴을 관람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공연 후 커튼콜에서 해밀턴의 연기자인 브랜디 딕슨이 “(부통령의) 관람에 감사한다.” 고 말하고 “다양한 인종의 미국인들은 트럼프 정권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을 것 같아 바짝 긴장하고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진심으로 이 뮤지컬이 미국의 가치를 지키고 우리를 대신해 일해 주도록 일깨웠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이날 공연을 위해 극장을 찾았다 관중들의 야유마저 들었던 마이크 펜스는 자리를 뜨려다 복도에 서서 딕슨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다. 관중들은 해밀턴 출연진의 이 같은 당부에 환호했다.

트럼프는 즉각 트위터를 통해 “해밀턴의 배우는 아주 좋은 사람인 마이크 펜스에게 아주 무례했다. 사과해라” 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는 극도의 분노를 표시하며 “우리의 훌륭한 미래 부통령 마이크 펜스가 어젯밤 극장에서 뮤지컬 배

우에게 희롱(봉변)을 당했다. 절대 발생해서는 안되는 일이었다” 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딕슨은 트위터를 통해 “대화(당부)는 결코 폭력이 아니다. 부통령 마이크 펜스가 가던 걸음을 멈추고 들어준 것에 감사한다” 고 응수했다.

이날 당사자였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오히려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다. 딸에게 민주주의에서의 다양한 표현방법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고 밝혔다. 다만 사과를 해야하는냐는 질문에 “공연 뮤지컬을 통해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는 제 3자의 판단에 맡기겠다” 며 뮤지컬 극장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임을 간접 표시했다.

트럼프는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19일 해밀턴의 뮤지컬과 배우가 과대평가 되었다며 뮤지컬을 보이콧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입장에는 뉴트 킹그리치와 전 KKK의 디렉터 등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나섰다.

이와 더불어 진보적인 성향의 마틴 월시 보스톤 시장이 “해밀턴은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고 유일하게 트럼프와 펜스에 입장에 동조했다. 그는 뮤지컬 극장은 편안하게 즐기러 가는 곳이지 결코 정치적 발언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의견을 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그의 의견은 수많은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 월시의 생각



뮤지컬 (해밀턴) 공연장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자

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 주된 지적이다.

뮤지컬 해밀턴은 린 매뉴얼 미란다가 만든 뮤지컬로 미국의 개국공신인 알렉산더 해밀턴이 고아이자 이민자였던 어려운 환경에서 초대 재무장관 개국공신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뮤지컬이다. 특히 이 뮤지컬의 대사중 가장 유명한 라인은 “이민자, 우리는 임무를 완수했다 (Immigrants, we get the job done!)” 이며 펜스가 방문했던 날 관중들은 한참동안 이 대사에서 기립박수를 보냈었다.

해밀턴은 브로드웨이에 데뷔한 후 최고의 흥행을 거듭하고 있다. 6월 토니상 수상식에서 베스트 뮤지컬 등 11개부문에서 수상했었다. 해밀턴의 티켓은 구하기도 극히 힘들며 로터리로 티켓을 받거나 아니면 수백달러의 티켓을 2차 티켓세일 마켓에서 구입해야 한다.

editor@bostonkorea.com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 은혜한의원에서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 ① 요통, 어깨, 목, 허리, 관절통증
- ② 두통, 편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집중력
- ③ 비염, 천식, 알레르기, 각종 스포츠 부상
- ④ 만성 편두통, 비만, 과체중
- ⑤ 요통, 어깨, 목, 허리, 관절통증
- ⑥ 임신, 갱년기, 여성질환, 비뇨기질환
- ⑦ 만성 질환, 만성 질환, 만성 질환
- ⑧ 만성 질환, 만성 질환, 만성 질환
- ⑨ 만성 질환, 만성 질환, 만성 질환
- ⑩ 만성 질환, 만성 질환, 만성 질환

781.862.1842

www.graceaom.com

442 Ma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01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음입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9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비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고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http://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 학업 지도 튜터링

####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2015년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mailto: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 MA주 첫 카지노, 약속했던 고용 불이행

## 입주 지역에서 90% 채용 조건 한참 미달 소수 인종에 대한 채용 비율은 10% 상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 첫 카지노이자 현재 영업 중인 유일한 카지노가 고용 창출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1일 발표된 매사추세츠 감사 보고서 통해 공개 되었다.

수잔느 범프 매사추세츠 감사관은 플레인리지 파크 카지노(Plainridge Park Casino)는 카지노가 위치한 타운과 주변 지역에서 직원의 90% 이상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슬롯머신 라이선스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프 감사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슬롯머신 게임과 경마를 즐길 수 있는 플레인리지 파크 카지노는 직원의 36%만을 해당 지역에서 충당하였다.

범프 감사관의 보고서는 2015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날은 카지노가 개장하기 불과 며칠 전이었다.

범프 감사관은 카지노 관련 라이선스를 관리하는 게이밍 위원회가 고용과 관련한 목표치를 분명하게 정해놓고 카지노 기업들이 이를 지키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

다고 권고했다.

게이밍 위원회는 범프 감사관의 보고서가 발표되자 “카지노 회사들이 아직 목표치인 90%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고용 목표는 진행 중인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지 특정 시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게이밍 위원회는 현재 플레인리지 파크 카지노의 직원 중 65%가 카지노 반경 20마일 이내에 거주하고 있고, 77%가 매사추세츠 주민이라는 사실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플레인리지 파크 카지노는 입주 지역에서 90%를 채용한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 게다가 고용 인력의 10% 이상은 소수 인종에서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잘 지켜지고 있다고 밝혔다.

플레인리지 파크 카지노는 작년에 개장하기 직전 직원의 14%가 소수 인종 출신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범프 감사관의 보고서에는 카지노 회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적혀있다. 그리고 플레인리지 파크 카지노는 고용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서를 주 정부에 제출했으나 구체적인 시간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플레인리지 카지노는 고용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성실히” 그리고 “공격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jsi@bostonkorea.com



이번 주 안에 매사추세츠 주민 백만여 명이 움직인다

## 추수감사절 주간 백만 명이 움직인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추수감사절 주기를 맞아 약 100만여 명의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여행을 떠난다. AAA 동북부지구에 따르면 이는 작년에 비해 5% 가량 증가한 수치다. AAA는 매사추세츠 주의 기름 가격이 안정적이고 실업률도 낮아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행객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AAA의 대변인은 “매사추세츠 주는 미국 다른 지역보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AAA는 추수감사절 전후인 수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15마일 이상 차량으로 이동하는 사람의 수

가 9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교통 체증을 완전히 피하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최악을 피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AAA는 “이른 아침에 출발하는 것이 좋고, 오후 3시에서 8시 사이에는 주요 도로에서 가능한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며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미국 전역에서는 이번 추수감사절에 4,57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jsi@bostonkorea.com



# 서울설렁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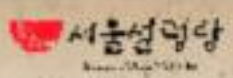
##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가시오는 봄, 서울설렁탕의 미역, 국밥, 보쌈, 두육과 함께 각종 두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r Deacon's Hill  
158 Cambridge St., Boston  
617.877.8888  
SeoulFoxMarket.com

“고객의 이익을 늘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 스티븐 손

SINCE 2001  
수석부사장, 브로커  
부동산전문, 리얼터



주택, 콘도, 사업체, 건물, 투자

617.290.0623 | Ssun@ownnewengland.com  
 Sun2323@gmail.com

"HOT" 비즈니스 매물 정보!

**RT.128 & I-95 안쪽에**  
모든 장비 갖춘 세탁소:  
부부 운영 Net \$100K이상 \$150K(강추)

**Waltham 불안의 픽업 스토어:**  
많은 확대 가능성!  
신규 또는 확장에 적격 \$149K(필건)




# 보스톤 워터프론트 개발의 앞날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도심지역 워터프론트 개발계획은 보스톤 시의 지난 3년간의 노력의 결과로 최종 승인을 남겨놓고 있다. 그 계획의 중심에는 아쿠아리움 인근의 7층짜리 주차빌딩 부지가 놓여 있다.

부지의 소유자이자 개발자인 돈 치오파로(Don Chiofaro)는 근 10년간 이 부지에 거대한 타워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주차빌딩은 보기에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그보다 나은 것이 그 부지에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2009년부터 시작된 이 계획은 두 개의 타워와 150만 스퀘어피트에 달하는 상업지구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아쿠아리움과 보스톤 하버타운 인근의 주민들은 반대해 왔다. 주차장 부지가 재개발되면 아쿠아리움 방문객들과 타워 주민들의 주차공간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스톤 재개발청(Boston Redevelopment Authority)은 부지에 대한 9십만 스퀘어피트 넓이와 6백 피트 높이의 빌딩 건축 허가를 내렸다. 이는 기존에 치오파로가 제시한 것보다 축소된 규모이지만 그는 이 허가를 기꺼이 받아들일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1일 치오파로는 보스톤글로브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 우리는 100%의 단계이다” 라고 말하며 “단지 운영 가능하고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를 가져야 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고 덧붙였다.

매력적인 부지와 거대한 건축물은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뉴잉글랜드 아쿠아리움은 이 기회를 늦게나마 알아차렸다. 아쿠아리움의 관계자는 최근 치오파로의 계획과 일치하는 공공

장소 조성 프로젝트인 블루웨이(Blueway)를 공개했다. 이는 기존의 그린웨이를 부둣가로 확장하는 것과 아쿠아리움 규모 확장, 그리고 IMAX 극장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간의 워터프론트의 경제성장은 그린웨이를 보다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기 위해 수년간 공공투자를 통해 얻어낸 결과이다. 이를 알아차린 아쿠아리움은 블루웨이를 통해 대중들이 좀 더 워터프론트를 자주 방문하게 되면서 인근 지역이 개발되는 기회를 만들려는 것이다.

매년 13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을 맞이하는 아쿠아리움은 워터프론트의 개척자이자 상징적인 관광지로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 중의 하나이다. 아쿠아리움의 이러한 제안은 치오파로의 수년간의 저항 끝에 나타난 돌파구가 되고 있다.

하지만 400피트 높이의 하버타운의 거주자들을 포함한 인근의 주민들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주차장 빌딩

의 인접지 소유자인 이들은 해당 구역 개발에 분명한 관심을 두고 있으면서도 치오파로가 제안하는 계획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조망권을 막는다는 것과, 이를 계기로 더 많은 고층빌딩이 워터프론트에 들어서게 되리라는 것. 이뿐만 아니라 치오파로 계획의 규모와 범위를 문제 삼고 있다.

치오파로는 워터프론트 개발과 관련하여 여전히 어려움을 직면해야 할 것이다. 인근 주민들의 반대뿐만 아니라 새 건물 설계를 제출하고 워터프론트 개발을 관리하는 제9장에 따라 주 승인을 얻는 것 또한 남아있다. 보스톤 기획 개발청(Boston Planning and Development Agency)의 이사회 승인도 받아야 한다.

한편, 아쿠아리움과 개발자인 치오파로가 의견일치를 보인 만큼 앞으로 이 프로젝트의 행보에 대한 기대 또한 모이고 있다.

sun@bostonkorea.com



보스톤 워터프론트에 위치한 그린웨이 전경



이탈리 보스톤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픈일을 매일 공지하고 있다

## '이탈리'(Eataly) 11월 백 베이 개점

### 45,000 스퀘어피트 규모의 이탈리아 식료품점 백 베이에 11월 29일 오픈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치즈와 빵, 파스타, 해산물, 육류, 와인 등, 이탈리아 식료품을 취급하는 대규모 마켓 '이탈리' (Eataly)가 보스톤 백 베이에 11월 29일 개점한다.

45,000 스퀘어피트 규모의 마켓 내부에는 4개의 레스토랑, 10개의 식당, 2개의 카페, 3개의 바, 5개의 신선식품 코너, 10,000개의 제품, 500명 이상의 직원 그리고 고쿠킹 스쿨이 갖춰질 예정이다.

제임스 비어드 어워드(James Beard Award)를 두 번이나 수상한 경력을 가진 요리사 바바라 린치(Barbara Lynch)는 이탈리 보스톤 오픈에 대해 “최근 보스톤에서 일어난 일 중에 가장 좋

은 일” 이라고 보스톤닷컴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그녀는 이탈리 보스톤의 공동 협력가이기도 하다.

셀러브리티 셰프이자 이탈리 USA의 파트너인 마리오 바탈리(Mario Batali)는 새롭게 오픈할 매장을 돌아보며 “실용적이다. 이곳은 그저 저녁 반찬거리를 구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 재미를 위한 곳이다. 이탈리아 문화를 경험하고 싶을 때 오는 곳이다. 치즈와 살라미의 대가들에게서 배울 수 있다” 고 말했다.

이탈리 보스톤은 보일스톤의 프루덴셜 센터 안에 입점할 예정이다. 그랜드 오픈은 11월 29일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이다.

sun@bostonkorea.com

##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폰도 오픈 하우스**  
(11월 20일 일요일 11시~12시 30분)

**Townhouse In Acton**

1,350 SF (finished basement not included),  
2 Beds, 4 Baths, 1 Garage,  
1 Office space, Loft, Open plan

**ASKING: \$525,000**



집을 사고 팔면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e-mail) thepetergina@team@gmail.com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 트럼프 "애플 美에 공장 지으면 세금감면 · 규제완화"

## 팀 쿡 CEO와 전화통화 전문가들 "미국 서플라이체인 구축, 쉽지 않아"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애플의 최고경영자(CEO) 팀 쿡과의 전화 통화에서 애플로 하여금 미국에서 대형 공장을 짓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트럼프 당선인이 20일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19일 쿡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나의 실질적 업적이 될 것 중 하나는 내가 애플에 대해 미국에 대형 공장, 미국에 수많은 대형 공장을 짓도록 할 때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에 따르면, 쿡은 "이해한다"고 답변했고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등을 약속했다.

애플은 고급(high-end) 제품에 대해 "애플이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했다"고 마케팅하고 있지만, 제품은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조립되며 부품은 주로 중국과 일본, 한국, 대만 등에서 생산된 것이다. 애플은 자사 부품 공급업체의 고용 인원은 16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이 일자리를 미국으로 가져오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그는 지난 1월 버지니아 유세 연설에서는 "우리는 애플에 대해 컴퓨터 같은 것들을 다른 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만들도록 할 것이다"고 말

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아이폰을 처음부터 미국에서 만드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애플은 중국 선전(深圳) 일대에 이미 구축된 대규모 서플라이 체인(공급망)과 제조업 사회기반시설(인프라)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공급망 관리(SCM)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황송진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지리가 중요하다"며 "선전에서, 당신이 한 부품을 원한다면, 하루 안에 최소 10개 공급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벤처 캐피탈업체 아이먼의 파트너 팀 윌슨은 "지금은 대규모로 소비자를 만드는 서플라이체인이 미국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부품) 수입 관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

에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며 "미국에 서플라이체인을 재구축하도록 하는 것은 향후 수년 내에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애플이 미국에 새로운 공급 기지를 구축하는데 투자한다면, 한국과 중국 기업이 반사 이익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시라쿠스 대학교의 제이슨 데드릭 정보학대학 교수는 미국에서 아이폰을 조립하면 노동 비용과 추가적인 운반 비용으로 인해 제품 비용이 30~40달러 인상될 것으로 추산했다. 데드릭 교수의 계산에는 공장 건설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데드릭 교수는 아이맥(iMacs)을 언급하며 "애플이 미국에서 일부 제품을 제한적으로 조립하는 것은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억개의 아이폰 생산을 미국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가격 경쟁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allday33@news1.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좌)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우)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NBA 경기

## 美 아마존, 스포츠 경기 중계까지... 프라임 서비스 확장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실시간 스포츠 경기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아마존은 미국프로농구(NBA), 메이저리그(MLB), 미국 프로풋볼(MLB)과 중계권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아마존은 아마존 프라임(유료) 회원에 한해 프리미엄 스포츠 경기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세부 사항은 전해지지 않았다.

아마존 프라임은 TV 프로그램, 프라임 뮤직 및 프라임 비디오와 같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상품,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회비는 99달러다.

신문에 따르면 아마존은 미국 프로축구리그(MLS), 대서양지구리그(ACC), 대학스포츠네트워크 캠퍼스, 120 스포츠, 전국라크로스 리그(NLL), 세계서핑리그

(WSL) 등 소규모 스포츠 경기와도 중계권 협상 중이다.

아마존은 전통적인 TV 채널과도 스포츠 경기 중계권을 놓고 접촉하고 있다. 멕시코 축구 리그 중계권을 가진 유니버전커뮤니케이션즈(UCI)와 월트디즈니의 스포츠 전문 채널 ESPN, 스포츠 전문 채널 원월드스포츠와 연락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마존의 이런 움직임은 전통적인 TV 스포츠 채널이나 위성방송 대신 인터넷을 통해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시청자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도 스포츠 경기 중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트위터는 2016 정규시즌 동안 미식축구리그(NFL)를 목요일 야간 경기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페이스북도 미국프로농구(NBA)와 제휴해 미국 맨즈 올림픽팀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했다.

hemingway@news1.kr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Master Golf Professional  
최성조 프로  
aj.usgtp@gmail.com

**857.600.6755**

**RE/MAX**

**Eileen Park (마일린 박) REALTOR®**  
RE/MAX Unlimited

주택 | 콘도 | 커머셜  
점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420 Harvard Street, Brookline MA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HAPPY 해피돌상**

문의 617.248.3131 Happydolway@gmail.com

# "전자투표지역 클린턴 승률 낮아 해킹 가능" 재검표 촉구

### 컴퓨터학자들 '평균 7% 낮은 득표율' 문제 제기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컴퓨터 공학자들이 이번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게 석패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 재검표를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고 CNN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시건 주립대 컴퓨터보안사회센터의 알렉스 할더만 박사 등 컴퓨터 과학자들은 지난 17일 클린턴 측에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이니아에 재검표를 시도해볼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전자 투표를 사용하는 일부 지역에서 종이 투표나 광학 스캐너를 사용하는 곳에 비해 클린턴의 승률이 유독 떨어지는 경향을 발견했다.

이를 분석한 결과 전자 투표를 실

시한 곳에서 클린턴은 다른 곳보다 평균적으로 7%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컴퓨터 과학자들은 이를 두고 해킹의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해킹의 직접 증거를 발견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패턴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언급한 3개 주는 여론조사에서 클린턴이 트럼프를 지속적으로 앞서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개표 결과 클린턴이 위스콘신과 펜실베이니아에서 패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건은 아직 개표가 진행중이지만 트럼프가 근소하게 앞서는 상황이다.

미시건에서 클린턴이 승리한다 하더라도 선거인단 수는 248명에 그쳐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 그러나 재검표를 통해 위스콘신과 펜실베이니아에서 클린턴이 승리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선거인단의 과반인 278명을 확보하게 된다.

앞서 선거 전 오바마 행정부가 러시아의 선거 개입을 비판하는 등 해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와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선거 결과에 개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21일 기준 클린턴은 6300만여 표를, 트럼프는 6100만여 표를 얻어 전체 득표수는 클린턴이 170만표 가량 앞서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의 '승자 독식' 선거인단 제도에 따라 클린턴은 선거인단을 232명 확보하는데 그쳐 290명으로 '매직넘버' 270을 넘긴 트럼프에 패했다.

yjyj@news1.kr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TPP에 대한 영향을 기사로 실은 중국 잡지

## 클린턴, 200만표 더 득표하고 敗... 앨 고어때보다 격차 더 커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미국 대선에 도전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보다 200만표 이상 더 많이 득표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미 폴리티코가 23일 보도했다.

정치전문 매체 쿡폴리티컬리포트 집계 결과 23일 기준 클린턴은 득표율 48.1%(6422만 3958표)로 46.6%의 트럼프(6220만 6395표)를 1.5% 포인트(p) 앞서고도 선거인단 획득에서 뒤져 당선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투표가 집계 중인 상황이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인단 306명을 확보해 대선을 승리로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측된다. 득표수로 보면 200만 표를 더 적게 받고도 백악관행 티켓을 거머쥔 것이다.

미국의 간접선거 방식인 선거인단 제도는 대부분 주에서 승자독

식제를 채택해, 이번 대선을 포함 득표율에 비례하지 않는 결과가 종종 발생했다. 2000년 대선에서도 앨 고어 당시 민주당 후보가 득표율 48.4%로 조지 W. 부시 당시 공화당 후보(47.9%)에 0.5%p 앞서고도 패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득표수에서 자신이 밀리는 점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22일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선 "득표수 선거를 더 선호했을 것"이라면서 선거인단 제도를 한번도 좋아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15일 트위터를 통해 만약 득표 선거였다면 자신은 캘리포니아와 같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유세를 벌였을 것이라며 "어쨌든 더 크게 이기고 더 쉽게 이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yjw@news1.kr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학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 레스토랑 창업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 ☑ 치킨 관련 전문업체
- ☑ 소스 공급 및 요리 기술 전수
- ☑ 영업 노하우 전수

치킨 가게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 20년 경력의 파방돌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스턴에서 레스토랑 운영중이므로 인제돈 맛과 실습 가능.  
 주방기술자이기에 마음고생하시는 분, 더 이상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파방돌로 연락주세요.  
 검증된 노하우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치킨 메뉴를 추가하고 싶으신 분**  
**식당을 준비하시는 분**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고 싶으신 분**



모든 제품은 한국 파방돌공장에서 안정적 공급이 됩니다.  
 안심하고 정사에만 전념하실 수 있습니다.

치킨양념 소스	참깨 소스	과전 파우더
치킨간장소스	불고기 소스	프렌치프라이 시즈닝
치킨 파우더	순두부 시즈닝	부대찌개 소스
치킨 염지제	순두부 다대기	갈비 소스, 자육복음 소스
떡볶이 소스	샤브 육수	김치찌개 소스

전화: 857.237.4985(문자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메일: farandoleusa@gmail.com  
 웹사이트: www.farandole.co.kr  
 한국공장: 경기 안산 단원 상곡 638-4 102동 파방돌

파방돌 공장 전경



레스토랑 주소: 175 Massachusetts ave, Boston, MA 02115 (버클리 음대 맞은편)

## HAPPY 해피돌상

**고급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고품격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겐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푸짐하게!**

- 풍격을 더하는 최전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용기행사과 천기, 골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대
- 풍성한 삼차림 세트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

# 두 명의 총리·경제사령탑에 법무장관 사표... '멈춰버린 정부'

## 지난 2일 총리·경제부총리 내정... 금융위원장 공식 법무장관·민정수석 사의... '도미노 사퇴' 될까

(서울=뉴스1) 윤태형, 유기림 기자 = 대한민국 정부가 비정상적의 늪에 빠지며 '국정마비'가 우려된다.

국무총리는 황교안 총리, 김병준 총리 후보자 등 2명인 상황이고,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도 2명이다.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고, 법무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국방장관은 국회 해임건의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헌정사상 초유의 '피의자 대통령'으로 물리면서 지난달 11일 이후 40여일이 지나도록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있다.

황교안 총리가 지난 2일 박 대통령이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발표 직후 총리 이임식을 갖기로 했다가 취소하는 등 혼선이 발생했고, 김 총리 후보자는 총리지명 20일이 넘도록 국회에 청문요청서를 제출조차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 수장 또한 2명인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김 총리 후보자 내

정 당시 경제 부총리 교체도 단행,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발탁했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장 자리는 임 위원장이 경제부총리 내정자 신분으로 위원장 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공석이 됐다.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은 경제 위기를 맞아 한진해운 등 구조조정과 내년도 예산안, 통화·재정 운용을 맡고 있는 양대 사령탑이다. 그런 자리가 20일 넘게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기획재정부 확대회의를 마지막으로 개최한 건 지난달 17일이었다. 격주에 한 번 핵심 간부 30여명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한 달이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순실 파문'의 직격탄을 맞아 공직자들이 거의 손을 놓은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는 내정 일주일 만에 국판 참석과 전생 체험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다.

지난 21일 김현웅 법무장관이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동반 사의를 표명한데 이어, 한민구 국방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처리 과정에서 야당이 반발해 국회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또한 안중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검찰 구속을 앞두고 사퇴한 이후 아직 후임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청와대 정부 부처 간 정책조정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외교·안보 부문에선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야권의 반대 속에서 여론 수렴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재추진 발표 27일 만인 23일 최종 서명을 마쳤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책임을 지고 있지만, 지난 17일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됐다"고 언급,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밝혔다.

또한 청와대는 다음 달 도쿄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박 대통령의 참석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 같은 국정 혼선과 공백 속에서 최근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져

면서, 탄핵정국을 앞둔 박근혜 정부에서 내각과 수석비서관의 '도미노 사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와 탄핵을 앞두고 이들이 사의를 표명한 배경을 놓고, 검찰이 이미 '통제불능' 상황으로 접어든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높은 분위기다. 이에 추가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는 장관급 인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김현

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할) 이번 사태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것으로 사표 수리 여부는 알 수 없다"면서 "국정 붕괴 (도미노) 조짐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국정을 잘 챙기고 있다"면서 "다만 '피의자' 신분으로 국정 전반에 나서는 것을 좀 지켜보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birakoca@news1.kr



사의를 표명한 김현웅 법무 장관(왼쪽)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



# 전병렬 산부인과

## “여성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 임산부 산전후 관리 및 분만

- 임신진료
- 초음파 검사
- 출산 케어

### 전 연령대 여성들을 위한 포괄적 진료

- 자궁암 검사 및 예방 주사
- 부인과 대소수술
- 각종 성병 검사, 치료
- 각종 피임법 및 갱년기 장애

지금 전화하세요 **781.787.3003**  
다음날 예약 진료 가능

Women's Healthcare of Woburn

444 Washington Street, Suite 100  
Woburn, MA 01801  
www.billchunmd.com

# H MART

##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WEEKLY SALE NOV. 25 - DEC. 1, 2016

# KOREAN PORK WRAPS

Wrap it with your love, it's eternal happiness.



H마트가 알리는 식탁위의 행복! 매콤 달콤한 무생채와 부드럽고 촉촉한 돼지 수육을 함께 싸드시며 입안 가득 행복함을 느껴보세요!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https://www.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https://www.pinterest.com/hmartusa)

<b>JINGA Tofu</b> 간가네 두부 Firm/Soft - 16oz <b>\$0.99</b>	<b>Washington Fuji Apple - Premium</b> 워싱턴 후지 사과 프리미엄 <b>\$1.49</b>	<b>Ginger</b> 생강 <b>\$1.49</b>	<b>Kabocha</b> 단호박 <b>\$0.88</b>	<b>Organic King Oyster Mushroom</b> 유기농 왕송이 버섯 8oz/box <b>\$3.99</b>
<b>Oriental Sweet Potato</b> 고구마 Medium Size <b>\$1.49</b>	<b>Korean Singo Pear</b> 한국산 신고배 8cm/box <b>\$26.99</b>	<b>Crown Broccoli</b> 크라운 브로콜리 <b>\$0.99</b>	<b>Lotus Root</b> 연근 <b>\$1.88</b>	<b>Gobo</b> 우엉 <b>\$1.99</b>

###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b>Pork CT Butt Chunk</b> 수육용 돼지기름살 <b>\$4.99</b>	<b>Chicken Drumstick</b> 치킨 드럼스틱 <b>\$1.49</b>
<b>Pork Spare Ribs</b> 돼지 갈비 <b>\$3.49</b>	<b>Sliced Beef Short Plate</b> 냉동 삼겹양지 슬라이스 <b>\$7.99</b>
<b>Patella Bone</b> 냉동 도가니 <b>\$1.49</b>	<b>Marinated Sliced Beef Rib Eye Bulgogi</b> 양념 소불고기 <b>\$6.99</b>

###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b>TONGTONGBAY Seafood Mix</b> 통통배 해물모듬 1 lb/box <b>\$3.99</b>	<b>Head-on White Shrimp</b> 머리있는 흰새우 30 - 40's <b>\$5.99</b>
<b>TONGTONGBAY Baby Octopus</b> 통통배 잡것 오징어 16 - 20's/2 lbs - pkg <b>\$3.99</b>	<b>Blackfish</b> 살아있는 우럭 <b>\$10.99</b>
<b>Salted Mackerel</b> 자반 고등어 <b>\$3.99</b>	<b>SUHYUP Salmon Sandfish</b> 수협 냉동 도무늬 <b>\$4.99</b>

###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b>Kyung Gi Medium Grain Rice</b> 경기미 40 lb <b>\$25.99</b>	<b>HAOREUM Seasoned Roasted Seaweed</b> 해오름 밥도둑 도시락김 Reg. Price: \$11.99/box/1kg <b>\$2.99</b>
<b>KADOYA Pure Sesame Oil</b> 가도야 참기름 32 fl.oz. <b>\$14.99</b>	<b>DONGSUH Maxim Coffee Mix</b> Original Mocha Caké Milk - 100g/2pkts <b>\$12.99</b>

### HELLO HOME 헬로홈과 함께하는 나만의 레시피 이벤트

Hello Home Recipe Contest!

헬로홈 매뉴얼에 내 레시피를 올리면

이름있는 나만의 레시피를 올리면 **대박 상품**이 내게 온다!!!  
참여만 해도 소정의 상품 증정!

11월 25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16 가을 이벤트 1/6, 2016

자세한 내용은 [HelloHome.com](http://HelloHome.com)을 방문하여 확인해주세요!

<b>PILMUKOM</b> 동두리 새우냉동 Non-Fried Ramyun Noodle 5.5 lb <b>\$4.99</b>	<b>GOMPYO</b> All Purpose Wheat Flour 5.5 lb <b>\$3.99</b>	<b>CHUNG JUNGONE</b> Sweet Potato Glass Noodle 17.6oz <b>\$5.99</b>	<b>SHIRAKU</b> 사카구 2종 Mix Assorted Fish Cakes 2.8 lb <b>\$2.99</b>	<b>HUY FONG</b> Sriracha Hot Chili Sauce 288 fl.oz <b>2\$5</b>
<b>LUCKY</b> 이미지 럭키 스틱 MEJA Lucky Stick 1.38oz <b>\$0.99</b>	<b>HAOREUM</b> Japanese Style Noodles U-dong 8.82oz x 2pkts <b>\$2.99</b>	<b>림천미드</b> DONGWON 동원 선천 미드 Canned Luncheon Meat 10oz <b>\$2.99</b>	<b>HAOREUM</b> Citron Tea with Honey 1.27 lb <b>\$3.99</b>	<b>HUY FONG</b> Sriracha Hot Chili Sauce Popcorn 1lb <b>\$3.99</b>
<b>HAOREUM</b> Banana Flavored Milk Drink 200ml x 24pkts <b>\$4.99</b>	<b>바운티</b> Bounty Paper Towels 12 rolls/3kg <b>\$14.99</b>	<b>HELLO HOME</b> Glass Jar 10L <b>\$9.99</b>	<b>데글레스</b> Wave Pack Glass Food Container 4x4 + 4x4/3pkts <b>\$2.99</b>	<b>LG PERIOE</b> Slim Touch Tooth Brush LG퍼리오 슬림터치 칫솔 4x4 + 4x4/3pkts <b>\$6.49</b>

During the selling process, there may be changes in price. Best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secon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second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마트는 판매하는 동안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품절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판매로 표시된 제품이 없으면 두 번째 판매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모든 H마트 지점은 모든 주요 신용카드를 받습니다. H마트는 판매하는 동안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野 탄핵 시간표 제시... "2일, 늦어도 9일 본회의 표결"

이달 말까지 실무준비 마무리...野 공조 재확인  
與 비박과의 논의 테이블 구성도 검토

(서울=뉴스1) 김현, 서미선, 박승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늦어도 내달 9일 본회의 표결'이라는 야권의 탄핵 추진 로드맵 윤곽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야권은 사실상 탄핵소추안 가결의 키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비주류 설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탄핵안 추진에 있어 '신중'을 기했던 민주당은 '빠르면 12월2일, 늦어도 12월9일 본회의 표결'이라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이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대통령 탄핵안 국회 표결 일정에 대해 "모든 불확실성을 줄이고 앞으로 정치일정이 예측가능하도록 만들겠다"며 "(탄핵안 표결은) 정기국회 내에 하겠다. 빠르면 12월2일, 늦어도 12월9일 국회 본회의장

에서 탄핵안이 표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탄핵추진실무단은 △28일 오전 각당 초안 마련 △28일 오후 야당 연석회의 개최 △29일 단일안 마련 등 이달내 실무 준비 완료를 목표로 탄핵소추안 마련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 탄핵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구체적인 단일안 추진 일정을 제안했고, 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장인 이춘석 의원과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간 탄핵 추진에 앞서 '선(先) 총리 논의' 문제, 실무 준비 시간표를 놓고 엇박자를 내던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추진을 위해선 야권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양측간 입장 조율에 더욱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야3당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간 회

동을 갖고 탄핵안 가결시 황교안 국무총리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한 만큼 이를 견제하기 위해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야권은 탄핵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선 박 대통령에게 '제3차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검찰에 대한 압박도 병행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롯데그룹의 미르재단 45억 출연과 K스포츠택단에 70억원을 제공했다 되돌려받은 일을 거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정보를 최순실에게 흘린 의혹과 함께 대통령이 개입해 수사무마를 약속했는지 조사해야 한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 박 대통령에게 제3차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무엇보다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이들과 함께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 마련까지 검토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현재 야3당만 탄핵소

추안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준비하고 있어 오늘 제가 평상시 연락하는 새누리당 분들과 연락할 것"이라며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도 실무책임자, 그리고 야3당의 추진단장들이 빠른시일 내 4차 회동을 해 각 당의 안을 갖고 동일안을 낼 수 있게 만들어보려고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언론사에서 조사해 보니 30명까지 가능하다고 나오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비박계를 중심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바뀐 상황"이라며 "우리가 개별접촉을 하고 있지만, (탄핵안은) 우리가 설득할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결단해서 국회 차원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새누리 '탄핵 찬성' 40명 돌파...당장 표결해도 '가결' 수준

야당 및 무소속 합쳐 탄핵 가결정족수 200명 넘어  
'탄핵 연판장이' 탈당 명부로 전환될지 주목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 당내 의원들을 대상으로 돌린 연판장에 24일 현재까지 40여명의 의원들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가 주도하는 연판장에 서명한 이들 40여명은 대다수가 비박(非 박근혜)계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현재 새누리당을 떠난 김용태 의원을 포함한 야당 및 무소속 의원 172명보다 여당 의원 최소 28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하는데 4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서명자만으로도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인 200명을 넘어선다.

이와 관련 김 전 대표 측근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정진석 원내대표 및 새누리당 특조위원 오찬 직후 기자들과 만나 '40여명이 탄핵에 찬성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 "김 전 대표의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당내에 탄핵을 찬성하는 의원이 30명 조금 넘었다"며 "고민 중인 의원이 20~30명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은 오늘 중이라도 40여명까지는 되지 않겠나 보

고 있다"고 한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대표의 탄핵 연판장이 향후 새누리당 '탈당 명부'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과정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연판장에 서명한 의원들은 이미 탈당을 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과는 달리 일단 당에 남아서 새누리당의 해체 및 재창당 수준의 강도높은 혁신과 개혁을 위해 당내 주류인 친박(親박근혜)계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친박계가 이들의 요구를 끝내 거부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모습을 보인다면 집단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제 김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새누리당의 실질적인 해체와 재창당을 위한 그런 처절한 변화와 몸부림이 있는지 지켜보는데 거기에 따라 (탈당을) 결행할 의원들의 숫자도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친박계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투표 보이콧'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투표가 시작되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연판장과 관련 정치는 민감한 사안일수록 자신들의 정치 행위에 대해 역사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진짜 당이 변하고 달라지고, 화합하고, 변화되는 것을 원하는지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ykjmf@news1.kr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기자들의 질문세례를 받고 있다

## 차대통령 탄핵 찬성 78.4% vs 반대 18.6%, 하야 7.5%

(서울=뉴스1) 박선미 기자 = 국민 10명 중 8명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심의 향배가 중요한 탄핵 정국에서 가능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지난 21~22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탄핵에 찬성한다'는 대답이 78.4%로 다수를 이뤘다.

찬성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찬성한다'가 54.3%, '찬성하는 편이다'가 24.1%로 각각 나타났다.

'반대'는 18.6%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약간 반대한다'가 12.6%, '매우 반대한다'가 6%였다. 모름·무응답은 3%였다.

박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뒷받침하는 대구·경북(TK)에선 67.9%가, 부산·경남(PK)에선 70.3%가 탄핵 추진에 찬성했다.

세대별로는 20대(90.1%), 30대(86.6%), 40대(86.7%), 50대(73.7%), 60대 이상(60.1%)으로 탄핵 찬성비율이 각각 나타났다.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서도 '하야(75.5%)'가 다수로 나타났다. '당장 스스로 하야해야 한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높게 나왔고 '하

야 일정을 정해 놓고 퇴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35.3%로 집계됐다.

'여야가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16.9%였고 '퇴진 반대 및 임기를 마쳐야 한다'는 2.2%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6.4%였다.

응답자 중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의견만 따로 살펴도 '즉각 하야해야 한다'는 응답이 17.2%, '시간을 정해놓고 단계적으로 하야해야 한다'가 29.6%, '탄핵'이 26.1%였다.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10명 중 7명이 임기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쪽에 손을 든 셈이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해야 한다는 응답은 62.6%, 반대는 24.3%였다. 새누리당 지지자 중에서는 탈당해야 한다는 응답이 39.3%, 반대가 52.7%로 조사됐다.

한편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1.5%,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8.1%로 각각 나타났다. 뒤이어 이재명 성남시장 10.1%,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9% 순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내 대선주자 지지율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 전 대표가 2.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유승민 의원(1.8%), 오세훈 전 서울시장(1.5%) 순이었다.

gsm@news1.kr



# 靑·檢 갈등 고조 속 차대통령 더욱 옥죄는 검찰, 다음 타깃은

### 법무장관·민정수석 동반 사퇴...전방위 압박 檢 칼날 김기춘 실장 정조준할까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라는 고장수카드를 꺼낸 가운데 정식 입건 후 대면조사 날짜를 못 박으면서 박 대통령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민정수석 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어지면서 '버티기'에 나선 박 대통령과 검찰 간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3일 박 대통령 변호인 측에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대면조사 요청서를 보냈다.

검찰은 이로써 박 대통령 측에 세 번째 대면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앞서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던 박 대통령 측은 지난 20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사상누각'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박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과의 독대 자리에서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날 삼성그룹 승계 당시 미심쩍은 합병찬성 결정으로 의혹에 휩싸인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하면서 박 대통령과 대기업 사이의 '대가성'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는 삼성의 최순실씨 모녀 지원 의혹과 관련한 대가성 규명 차원이라는 관측이다.

검찰은 아울러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나섰다.

우 전 수석은 최씨가 주요 국정 현안에 개입해 각종 전횡을 휘두르는 것

을 막는 등 민정수석에게 주어진 대통령 측근 감찰업무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특별감찰반이 최씨 최측근인 광고감독 차은택씨 사건을 내사하고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이외에도 롯데그룹 관련 수사정보를 안중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통해 K스포츠재단에 알려주는 등 최씨 사건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K스포츠재단은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원을 추가 출연받았다가 롯데그룹 압수수색 하루 전에 이 돈을 돌려줘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제출한 선임계에 적힌 수임료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건네받은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지는 가운데, 청와대의 '사정투톱'인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동시에 사표를 내면서, 이들의 사표가 탄핵을 앞둔 현 정권의 붕괴 조짐인지 여부를 놓고

여론의 관심이 쏠린다.

김 장관과 최 수석은 지난 20일 검찰이 박 대통령을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피의자로 정식 입건한 것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은 일명 '최순실 특검법'이 시행되기 전에 박 대통령을 둘러싼 관련 의혹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고(故) 김영한 민정수

석의 '비망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 '최순실 교과서'라는 의심 받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시했다는 의혹, '정윤희 문건'과 동 무마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김 전 실장은 특히 최씨와 최씨 둘째인니 손득씨가 단골인 차음의원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는 등 이 병원 관련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cho84@news1.kr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좌)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우)

## 검찰, '우병우 의혹' 靑 민정수석실 압수수색

###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 사무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49)의 '직무유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현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받고 있는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후 검찰이 청와대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이 주요 국정 현안에 개입해 각종 전횡을 휘두르는 것을 막는 등 민정수석에게 주어진 대통령 측근 감찰 업무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최씨 최측근인 광고감독 차은택씨(47) 사건을 내사하고도 이를 덮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또 변호사 시절 제출한 선임계에 적힌 수임료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 전 수석의 사건 수임내역을 받아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특히 롯데그룹 관련 수사 정보를 안중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57) 등을 통해 K스포츠재단에 알려주는 등 최씨 사건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K스포츠재단은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원을 추가 출연받았다가 롯데그룹 압수수색 하루 전에 이 돈을 돌려줘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우 전 수석의 장모가 자신의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에 최씨를 초대해 함께 골프를 친 게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우 전 수석의 장모와 최씨가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진 시기는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내정된 지 한 달도 채 안 된 때다.

또 우 전 수석은 지난 2014년 '정윤희 문건' 파동 당시 담당 경찰관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사건이 진행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고 최모 경위는 민정수석실에서 회유를 받았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내용을 유서에 남기기도 했다. 문건 유출 혐의로 기소돼 약 5개월 가량을 복역하고나

온 한일 전 경위(46)는 최근 언론을 통해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회유·미행 때문에 심적 압박을 심하게 받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당초 최씨 남편 정윤희씨의 국정농단 의혹으로 시작됐던 이 사건은 결국 검찰 선에서 '문건 불법 유출' 사건으로 정리돼 관계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는 수준에서 끝이 났다.

이밖에 우 전 수석은 자신의 측근인 국가정보원 간부로부터 최씨 관련 동향 보고를 직보 받았다는 의혹, 차씨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에게 우 전 수석의 이름을 거론하며 '우리를 봐 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다만 차씨는 귀국 당시 취재진들에게 우 전 수석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0월29~30일 안중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 등의 사무실을 한 차례 압수수색한 뒤 지난 15~16일 사이 한 차례 더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수임 비리 의혹 외에 직무유기, 수사정보 유출 등 각종 의혹을 추궁할 방침이다. 또 이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64)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도 추궁할 계획이다.

abilitykl@news1.kr

## '사건수임 축소신고' 우병우 前수석 "착오가 있었다" 소명

### 서울변회, 추가 소명 요구할 듯...28일 조사위서 법 위반 논의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49)이 변호사 시절의 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착오가 있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전날 우 전 수석으로부터 "(사건 수임) 제출하는 지 잘 몰랐고 탈세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소명서 여러 장을 제출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우 전 수석이 일부 착오를 인정함에 따라 추가로 소명서 제출을 요구할지 검토 중이다. 오는 28일 열리는 조사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포함해 우 전 수석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서울변회는 우 전 수석이 2013~2014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사건수임 건수 및 수임액 보고의무를 어겼다는 의혹을 조사위에서 살피고 있다.

조사위에서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서울변회는 대한변호사회(협회장 하창우)에 징계개시를 신청하게 된다.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서울변회로부터 우 전 수석의 사건수임 내역을 제출받아 수임비리 여부를 살피고 있다.

우 전 수석이 다단계 사기업체 '도나도나' 사건을 몰래 변호했고 수임료를 축소 신고해 1억1000만원 가운데 60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했다며 조세포탈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선임계를 낸 사실을 확인하고 '몰래변론'은 아니라고 결론냈다. 그러나 선임계에 적힌 수임액수보다 더 많은 대가를 건네받았는지를 계속 확인 중이다.

검찰은 23일 오후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가 주요 국정 현안에 개입해 각종 전횡을 휘두르는 것을 막는 등 민정수석에게 주어진 대통령 측근 감찰업무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최씨 최측근인 광고감독 차은택씨(47) 사건을 내사하고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silverpaper@news1.kr



# 샤부샤부

무제한 BBQ 스페셜

다양하고 신선한 고기를 마음껏 즐기세요!

**COURSE "A" \$25.95**

불고기/차돌배기/치킨 테리야게/치킨 불고기/불닭/돼지 갈비  
대패 삼겹살/돼지 통심/돼지 불고기/곱창구이/돈까스/치킨캐스  
야채/짜장/순두부찌개/단장찌개/계란찜/공기밥/안주 튀김

**COURSE "B" \$28.95**

COURSE "A" 포함  
갈비/LA갈비/통심구이/특별치 삼겹살/매운 흑돼지 삼겹살  
새우구이/푸꾸미구이/오징어구이/새송이버섯/비밀구이  
오살불고기

**LUNCH SPECIAL \$18.95**

불고기/치킨불고기/차돌배기/돼지 삼겹살/돼지불고기  
돼지갈비/치킨 테리야게/불닭/오동 아재구이/순두부찌개  
단장찌개/계란찜/공기밥/짜장



영업 시간 **화-목** : 오전 11시 30분 - 오후 10시  
**금, 토** : 오전 11시 30분 - 오후 11시

단체모임에 좋은 Private Room 제공 (40-50인)

학생증을 보여주세요! **10% OFF** 학생 할인



투정하고 맛있는  
수라 BBQ가 함께  
소주 한잔 어때요?

수라 BBQ 보스턴  
**781.391.5606**

27-29 Riverside Ave. Medford, MA 02155  
(구) 청기와 식당 위치

**BLESSING CHANNELS**  
네일 아카데미  
BCNAILSCHOOL.COM



지금! 자격증에 도전하세요

네일아티스트는 혁신적인 네일아트 디자인의 트렌드를 이끄는 전문 직업입니다.

MA Nail School Year 1 \* Full-time School

(MA주 한인 운영)  
**네일 자격증 학원**

- > 저렴한 Tuition
- > MA주 내 최단기 자격증 취득 과정

겨울 수강생 특별할인 기간 (~ 2월 28일)

현재 학원내에서 관영종인 주말 미술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네일아트의 예술성예의 가능성을 넓히고 순수미술적 감각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사: 홍익대학교 서양학과 졸업, Pratt Institute Fine Art 석사)

**WEEKEND ART CLASS**

www.artwithkatbyua.com

주말 미술교실은 학생들이 실기인습을 통해 순수 미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기교를 배워 실력향상을 도모합니다. 미술을 통해 삶의 예술예의 가능성이 열려지도록 지도합니다.



**드로잉, 수채화, 유화**  
**포토폴리오 제작**  
**학생 및 성인반 개설**  
Call 810,586,3727(미술 수업 상담)



76 Winn Street #1C, Woburn, MA 01801  
bca.76@gmail.com

(한국어 무료 가능)  
**781.729.8868**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톱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r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종현  
교정 전문의

# '최순실 특검' 본궤도에...국회, 특검 후보 추천 착수

전날부터 시행...丁의장 이르면 이날 대통령에 임명요청  
野추천 특검 후보로 이광범 이수빈 김지형 등 거론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최순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른바 '최순실 특검'이 23일 본궤도에 오른다.

여야는 이날부터 특검 후보자 추천 작업에 돌입한다. 절차에는 속도가 붙었지만 후보자 임명 과정에서 난항이 예고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대상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의 최순실 등에 대한 국가 기밀 누설 의혹 △최순실 등의 국정 개입 의혹 △정부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각종 이권 개입 의혹 등 14개다.

앞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1명을 박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국회의장은 법이 시행된 날(22일)부터 3일 이내에 특검 임명을 박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르면 23일, 늦어도 24일 중 서면으로 박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민주당과 국민의당에게 의뢰해야 하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특검 후보자 대상은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직에 있었던 변호사다. 대통

령이 야당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이같은 절차에 가장 14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임명과 임명 후 수사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다음달 중순께 본격적인 특검 조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추천할 특검 후보로 이광범 변호사와 이수빈 변호사 등이 오르내린다. 대법원 비서실장 출신인 이 변호사는 이명박정부 말기 '내곡동 특검'을 맡은 바 있다.

검사 출신의 임 변호사는 2008년 광주병 파동과 관련해 'PD수첩' 제작진 기소여부를 두고 검찰 수뇌부와 마찰을 빚고 사직한 유명 법조인이다. 다만 임 변호사의 경우,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차은택 CF감독의 변호인들과 같은 로펌 소속이라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비교적 진보적 성향인 박시환·김지형 전 대법관 등도 거론된다.

야권 일각에서는 채동욱 전 검찰총

장도 후보로 꼽힌다. 하지만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가 '야당 추천' 특검에 합의했지만 박 대통령 측이 '중립적 특검'을 논하고 있는 탓에 박 대통령이 중립성을 이유로 야당 추천 인사 임명을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박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거나 후

보 재추천을 요구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거부할 수 있겠느냐"고 언급하는 등 검찰 수사를 거부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박 대통령이 야당 추천 특검 후보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도 크다.

eriwhat@news1.kr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마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 교육부, '정유라 입시부정' 이대에 전 입학처장·학장 해임 요구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부가 '비선실세'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의 딸 정유라씨(20)의 이화여대 입시·학점 특혜와 관련해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해임을 이화여대에 요구했다. 최경희 전 총장은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교육부는 24일 지난 18일 발표한 '이화여대 특별감사' 결과의 후속 조치로 총 2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이화여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교수 15명에게 징계를 요구했고, 나머지 13명의 교수·직원에게는 경고와 주의, 문책을 요구했다.

정씨가 이화여대에 입학할 때인 2014년 입학처장을 지낸 남궁곤 교수와 건국대학교 학장이었던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 학장, 면접평가위원으로 참여했던 교수 3명 등 7명은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남 전 처장과 김 전 학장은 중징계 중에서도 해임을 요구했다. 나머지 5명의 징계 수위는 대학이 알아서 결정하도록 했다.

최경희 전 총장과 전 기획처장, 전 교무처장, 면접평가위원 1명 등 8명은 경징계 조치를 내리도록 요구했다.

학사정관 등 7명에게는 문책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징계 처분 요구와는 별도로 13명을 고발하고 최 전 총장과 류철균 융합콘텐츠학과장, 최씨 모녀 등 4명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형사 고발 대상자는 남궁곤 처장과 김경숙 학장 등 중징계 대상자 7명, 경징계를 요구한 면접평가위원 1명, 출석 미달인데도 올해 1학기 학점을 부여한 류산업학과 겸임교수 등이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정유라 특혜 관련 이화여대 감사 결과'에서는 정씨의 입학 특혜가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 이화여대는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에서 원서접수 마감 이후 정씨가 획득한 아시아게임 금메달을 면접평가에 반영했다.

jiny@news1.kr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변방장수' 이재명 돌풍...2002년 盧風 '데자뷔'?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의 대선후보 지지율 상승세가 가파르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지지율 차이는 있지만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어깨를 겨루는 대선 후보 빅3에 진입했다.

여권의 유력주자 반기문과 체급을 맞춰 '1위 후보' 문재인을 위협하고 있다.

2002년 대선 후보로 나서 노풍(盧風) 신드롬을 일으켰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화추이와 흡사하다.

청문회 스타였지만 2002년 초까지만 해도 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예상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다.

2002년 1월 1일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실시한 차기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의원들은 43.4%의 지지율로 이인제 고문을 낙점했다. 노무현 고문은 11.5%에 불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이인제와 양자대결을 펼칠 10%포인트 이상 앞섰던 '대세론'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는 노무현에게 있어 '언감생심'의 존재였다.

경선을 앞둔 3월 초에도 이인제 1강 구도는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선이 시작되자 판도는 급변했다.

MBC가 3월 15일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남녀 성인 10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회창 대 노무현 양자대결에서 노무현이 39.6%로 37.3%의 지지율을 보인 이회창을 근소하게 앞섰다.

3월부터 4월 초까지 40여 일 동안 지지율이 큰 폭으로 뛰며 노무현의 돌풍

은 가속화됐다.

4월 3일 MBC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은 이회창과 양자대결에서 49.5%대 33.4%로 16.1%포인트 앞섰다.

지지자들 사이에서 '전투형 노무현'으로도 불리는 이재명의 지지율 상승세도 2002년과 흡사한 점이 많다.

월간중앙이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대선후보 지지도에 따르면 이재명 시장은 '14.5%'의 지지율을 보였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23.4%), 반기문 UN 사무총장(16.7%)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리얼미터 11월 4주차 조사에서도 이재명은 11.6%를 기록해 '대세론' 문재인(20%)과 '대망론' 반기문(17.4%)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안철수는 11.4%로 4위에 그쳤다. 약 한 달 전인 10월 4주차 조사에서 이재명은 5.9%에 불과했다.

23일 발표된 알앤씨치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결과 역시 이재명은 12.3%로 3위에 올랐다. 10월 26일 5.3%에서 한 달 만에 2.3배 이상 지지율이

상승했다.

노무현과 이재명은 선명한 야성으로 진보층과 젊은 층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반면 노무현은 5공 청문회를 기점으로 떠오른 스타였고 이재명은 기초 자치단체장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재명이 노무현처럼 대역전극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춧발민심'은 이재명을 유력 주자의 대열에 올렸지만 부메랑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의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보장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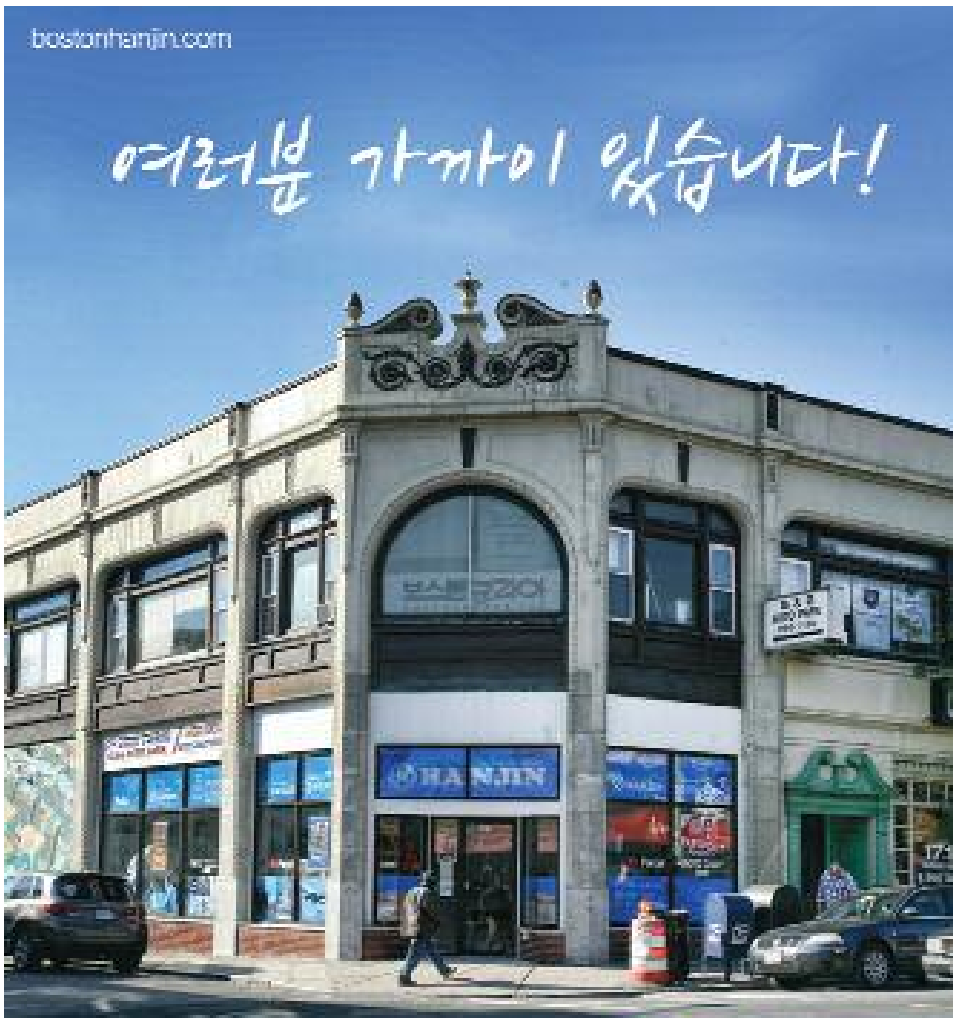
40일간의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여줬던 노무현도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월드컵바람'을 탄 정몽준에 밀리며 한 때 위기를 맞았었다.

이재명이 이변을 만들 수 있을지 잠깐 뜨다만 '반짝 스타'에 그칠지는 국민 검증과 약재, 고비 속에서 보여줄 정치적 역량에 달려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ad2000s@news1.kr



이재명시장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어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도 & 푸도상 튜터링 Nabis Studio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임소문난 치킨 레스토랑  
(구)inboston이  
파랑들로  
여러분께 가까이 갑니다.



모든 메뉴: Yelp에서 Farandole를 검색하세요

배달 가능지역: Allston(B.U.), Cambridge(M.L.T., Harvard), Longwood, Brookline Village 등

영업시간: 11:30am-11pm

배달주문시간: 4pm-10:15pm

주문전화 :

**617.982.7118**

(배달이 읍대 맞은편)

175 Massachusetts ave, Boston, MA 02115

**Norcom Mortgage** 마이클 리 모기지  
Mortgage  
Norcom Commercial Corp., Inc. 1996.2 (F)1420



부동산 판매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한국어 상담

**Pre-Qualification 당일 서비스**



Michael Lee, Loan Officer  
mike.lee@norcom-usa.com

**전문 분야**

통상 대출  
정부대출: FHA, VA, USDA  
고정금리, 변동금리 모기지  
점보통  
피파이낸스  
주택담보대출  
그외 올림프루브먼트 등

Michael Lee's NMLS ID#1484242  
Real Estate Sales License No. 9534406

**Norcom Mortgage 회사 소개**

Norcom Mortgage, Direct Lender Founded in 1996  
Former MassFreddie Mao seller/servicer  
Gloria Mae issuer  
In-house underwriting, processing, closing, servicing all centralized  
In-house appraisal  
Same day loan pre-qualification

125 Cambridgepark Dr. Suite 301 | **978.314.8818**  
Cambridge, MA 02140

의료보험/생명보험/연금보험  
메디케어/상해보험  
스몰 비즈니스 팩케트 패키지  
인슈어런스 브로커

**마이클 리  
종합 보험**

2017년 의료보험 평균 20%이상 인상  
OPEN-ENROLLMENT 의료보험 무료 상담

[www.MyInsuranceMA.com](http://www.MyInsuranceMA.com) (한국어 웹서비스)

2017년 매사추세츠 의료보험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에 맞는 맞춤형 의료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의료보험도 인상을 대체하는 보조플랜**

Accident, Disability, Active Care  
사고시 의료보험과 무관한 혜택  
개인사업자를 위한 인컴 프로텍션 플랜  
암, 심장병, 뇌졸중 보험

[mlee@MyInsuranceMA.com](mailto:mlee@MyInsuranceMA.com)



Michael Lee  
National Fire Under License No. 126827  
Massachusetts License No. 233882  
Licenses in Health, Life,  
Savings, Auto &  
Property & Casualty (in process)

**가족의 미래를 보호하는 플랜**

모기지 프로텍션 플랜  
학자금 저축 플랜  
무자상 없어 안전한 연금플랜  
Express Term Life  
Universal/Whole Life

Health/Life/Disability/ Medicare/  
Disability/Long Term Care/  
Retirement/IRA Insurance Broker

Health Crossroads/MA/USDA  
Approved Broker  
MA, 모든 영도(영도)의 캐슬러 기능:  
NOR, PA, NY, OH, MI, WA, IL,  
IN, OH, PA, NY, OH, MI, WA, IL, IN

**978.314.8818**

125 Cambridge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주승원**  
617.780.7839



**박성종**  
617.304.7001



**William Glanton**  
978.394.2017

## 안녕하세요?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Opportunities를  
찾으시는 손님들이나  
파시기 원하시는 손님들은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Berkshire Hathaway  
Home Services &  
Commercial Division에서는  
미주 각주에서 들어 오시는  
큰 회사로 오시는 손님들을  
직접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에만  
2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저희 회사의 연결망에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감사합니다.

대표 백영주 올림



**Allen Quinn**  
978.897.2781



**이현주**  
401.935.3397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Kevin Curry**  
978.852.296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 보스톤 뉴스타가 버크셔 해서웨이로 다시 태어납니다!



**Steve Son**  
617.290.0623



**Shell Yu**  
781.526.2416



**OT Kim**  
617.620.8242



**Gina Choi**  
978.866.3248



**Al Magurn**  
508.733.2949



It's a sign of great things  
to come in real estate.



**Maria Koral**  
978.973.6043



**Nancy Marcis**  
713.817.6970



**Clif LaPorte**  
978.424.3045



**Leslie Luppold**  
508.423.1535



**Johanna Parlon**  
978.501.4753

## OFFICE LOCATIONS



*Good to know:*

18 Offices in Maine, Massachusetts & Rhode Island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http://bhhsneprime.com)

# 탐 브래디, NFL 통산 최다승 눈앞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지난 20일 경기에서 나이너스를 상대로 30대 17로 승리를 거두었다. 팀의 승리와 함께 쿼터백 탐 브래디는 NFL 신기록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 패트리어츠는 이날 승리로 브래디가 NFL 통산 최다승 기록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렸다고 발표하였다. 전설적인 쿼터백 브렛 파브르가 가지고 있는 199승과 같아진 것이다. 통산 최다승 기록은 선발 쿼터백으로 출전하여 거둔 승리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쿼터백 최다승 기록은 페이튼 매닝의 200승이다. 브래디는 NFL 통산 최다승 기록까지 단지 1승만을 남겨두고 있고, 그 이후에는 매경기 살아있는 역사가 되는 것이다. 패트리어츠는 올해 시즌 잔여 경기

가 6경기나 남아 있다. 이번이 없는 한 브래디는 이번 시즌 내에 대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NFL 통산 최다승 2위에 이름을 올리게 해준 지난 주 경기는 브래디다운 경기였다. 280 패싱야드에 4개의 터치다운, 인터셉션은 0였다. 게다가 4개의 패싱 터치다운은 각각 다른 4명의 리시버가 성공시켰다. 브래디가 한 경기에서 인터셉션은 하나도 없이 4개의 터치다운을 성공시킨 건 이번이 21번째다. 이 역시 NFL 최다 기록이다. 이미 브래디는 프로 풋볼 선수로서 다른 선수와 비교가 불가능한 이력을 쌓아가고 있다. 11번 프로 볼러에 선정되었고, 4번의 슈퍼볼 우승 경력과 2번의 리그 MVP 수상 경력이 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올해 39세인 브래디의 기



패트리어츠의 쿼터백 탐 브래디가 NFL 통산 최다승 공동 2위에 올랐다

순위	쿼터백	승수
1	Peyton Manning	200
2	Tom Brady	199
3	Brett Favre	199
4	John Elway	162
5	Dan Marino	155

(쿼터백 NFL 통산 최다승)

량이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39세의 나이는 이미 전성기를 한참 지난 나이이고, 당장 은퇴를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나이이다. 그런데 오히려 브래디는 나이를 먹을수록 기량이 더욱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브래디 혼자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이룩한 것은 아니다. 브래디는 타이트 엔드 랍 그롱코스키를 비롯해서 와이드 리시버 랜디 모스, 웨스 웰커 등

의 뛰어난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17년의 프로 경력을 통해 브래디는 패트리어츠의 간판 스타로 자리매김했고, 풋볼 역사상 최고의 쿼터백이 되었다. 브래디가 매닝의 기록을 경신하는데 그치지 않고 훨씬 더 높은 곳까지 이를 것이라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최근 5년 동안 브래디는 매년 4천 야드 이상을 던지고 있다. 성적도 성적이지만 브래디는 NFL

에서 내구성이 가장 뛰어난 선수다. 브래디는 올해 시즌 4경기를 징계 때문에 출전하지 못했는데, 2008년 이후로 브래디가 경기를 결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패트리어츠는 이번 시즌에 8승 2패를 달리고 있다. 플레이오프가 시작하기 전에 브래디는 매닝의 기록을 넘어 서기 위해 필요한 2승을 어렵지 않게 거둘 것으로 보인다. [jsi@bostonkorea.com](mailto:jsi@bostonkorea.com)

## 히비 잇갈린 쏘 스타...두 신지와 아즈문 웃고-Son은 울고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별들의 전쟁'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손흥민(24·토트넘)이 고개를 숙였다. 반면 일본의 오카자키 신지(29·레스터)와 카가와 신지(27·도르트문트) 그리고 '이란 신성' 사르다르 아즈문(21·로스토프)은 활짝 웃었다. 24일(한국시간) 2016-17 UEFA 챔피언스리그 5라운드 16경기가 끝났다. 이날 출전한 아시아 선수들은 총 4명, 이중 손흥민만 웃지 못했다. 손흥민은 지난 23일 모나코의 루이 2세 스타디움에서 열린 AS 모나코와의 E조 조별 예선 5차전에 선발 출전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전반 6분 자신 앞에 놓인 1대1 상황에서 골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등 전체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플레이로 1-2 패배의 책임을 졌다. 특히 토트넘은 이날 패배로 16강 진출이 좌절, 패배의 아쉬움은 더욱 컸다. 손흥민은 지난 20일 웨스트 햄과의 리그 경기에서 후반에 교체 투입돼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3-2 역전승에 일조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였다. 때문에 챔스에서 그 상승세가 이어지길 기대했다. 하지만 모나코를 상대로 너무도 부진한 모습을 보인 손흥민은, 후반 20분 빈센트 안센과 교체됐다.

경기 후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은 손흥민에게 10점 만점에 4점, 이날 경기에 나선 양 팀 통틀어 가장 낮은 평점을 매겼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 닷컴도 손흥민에게 가장 낮은 5.7점을 줬다. 손흥민이 팀의 패배를 지고 무겁게 경기장을 빠져 나갈 때 레스터시티의 오카자키는 영국 레스터의 킹 파워 스타디움에서 홈팬들과 함께 16강 진출의 기쁨을 누렸다. 지난 시즌 레스터의 동화 같은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일조한 오카자키는 올 시즌 레스터의 사상 첫 챔피언스리그와 함께 하고 있다. 오카자키 입장에서도 챔피언스리그 출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4라운드까지 교체로만 경기에서 나선 오카자키는 클럽 브뤼헤를 맞아 처음으로 선발 출전했다. 첫 기회를 잡은 오카자키는 전반 5분 만에 선제 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2-1 승리에 일조했다. 또한 이날 승리로 레스터는 조별예선을 통과, 기쁨은 배가 됐다. 도르트문트의 카가와도 같은 시간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포효했다. 레기아 바르샤바를 상대로 선발 출전한 카가와는 팀이 0-1로 뒤지고 있던 전반 17분과 18분에 연속 골을 넣으면서 팀의 8-4 다득점 역전승의 토대를

마련했다. 카가와의 골이 더욱 기쁜 이유는 지난 8월 24일 아인트라흐트(4부리그)와의 DFB 포칼에서 골을 넣은 뒤 약 3개월 만에 골맛을 봤기 때문이다. 올 시즌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카가와는 이날의 두 골로 반동할 기회를 잡았다. 24일에는 아즈문이 빛났다. 아즈문은 자신들의 안방인 러시아 로스토프의 올림푸스 2스타디움에서 열린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에서 0-1로 뒤지고 있던 전반 44분 동점골

을 넣었다. 아즈문의 골을 발판 삼은 로스토프는 바이에른에 3-2 승, 역사적인 챔피언스리그 첫 승을 기록했다.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출전한 아즈문은 놀라운 활약을 펼치고 있다. 아즈문은 예선에서부터 안더레흐트, 아약스를 상대로 골을 기록, 팀을 본선으로 이끌었다. 본선에서도 아즈문 효과는 이어지고 있다. '강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골을 넣은 뒤 우승 후보로 꼽히는 바이에른의 골망을 흔들었다. [dyk0609@news1.kr](mailto:dyk0609@news1.kr)



손흥민(24·토트넘)

# POSPay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직도 카드를 긁고 계십니까?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본손: Boston



돼지곰: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a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고객 절약 사례>**  
 본손: 20% 절약  
 돼지곰: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a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http://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합법 한국방송 티보플레이에서  
명품 교양채널 **MBN**을  
실시간으로 만난다  
이제 **MBN**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티보에서 시청하세요

김주희앵커의  
**MBN 뉴스8**  
관심을 모아 관심을 끄는 뉴스

**MBN 런칭 기념 가입할인 혜택!**

- 신규가입 고객 \$39.99 → \$29.99/개
  - 케이블 TV에서 티보플레이로 전환하시는 분께 드리는 혜택!  
\$29.99/개 + 1달 추가 무료 이용  
+ 1년간 유료영화, 성인영화 무료
- \*케이블 전환 고객님은 전보요금 별장지 확인이 가능해드립니다.



KBS, MBC, SBS, TVN, MBN, HBN, OCN, XBS, CGT, TBS, 티보플레이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방송됩니다.  
문의: 617-955-9112 (LA. 가담번호: 213-999-7090)  
본사: 340 VANDERBILT ST., BURLINGTON, MA 01803

**3 DAYS ONLY** Friday, Saturday & Sunday  
**NOVEMBER 25, 26 & 27**  
from 9am to 8pm

**BLACK FRIDAY**

**SALE**

**30% TO 65% off ENTIRE store\***  
SOME EXCLUSIONS APPLY

**FREE Gemstone**  
with any purchase\*

*We pay your sales tax!*

**PRINCESS DIAMONDS**  
FINE JEWELRY

34 Cambridge Street | Burlington MA 01803  
(781) 362-4767 | www.princessdiamonds.net

---

**\$500 OFF\***  
Any Remount or Redesign  
of \$1,000 or more

**\$100 OFF\***  
Any purchase of \$250 or more

**\$20 OFF\***  
Any Jewelry or Watch Repair  
of \$30 or more

**CS PLLC 크라우저 앤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 / 국제법 전문 로펌 Specializing in Immigration / International Law



-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가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제안
- VISIT US AT :  
[www.stevesuh.com](http://www.stevesuh.com) / [www.suhlawyer.com](http://www.suhlawyer.com)

**Crouser & Suh PLLC**  
1309 Beacon S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mailto:info@stevesuh.com)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뜰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렉싱턴 소재 한인식당 웨이터/웨이추레스 구합니다. T. 781-860-0171 (Kay)

세탁소 프레스 하실 분(파트/풀 타임) 카운터 보실 분(파트/풀 타임) T. 617-955-7932

**Care Cleaners에서 일할 분 구함**

**Chelmsford Store:**  
Store Worker(8시간에서 12시간)  
프레스, 드라이버(12pm - 6pm)

**Western Store:**  
카운터(Full time)

연락처: 603-401-0113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NAILS SALON FOR SALE**

Nails Salon has been in business for over 15 years. In Stop Shop plaza (soon to be Target). Has 7 pedicure chairs and 7 tables. Still space for future expand. Located in Pawtucket, Rhode Island. If you're interested, please contact me at this number. Thank!

ThalHen  
**909.569.3777**



4989 부동산 매각은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뉴햄프셔 네슈아 한식/일식 식당 매매. 좋은 위치, 9년째 영업 중 T. 603-882-8644 (오후 4시 이후)

**메사추세츠주 태권도 협회**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MSTA**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고문단장: 안 남 열



고문: 이 강 원



고문: 구 정 회



고문: 조 형 구











회장: 정 제 형 부회장: 허 훈 부회장: 리치안 사무총장: 전 명 호 회계: 김 희 용

웹사이트: 강 창 남  
시범단장: 홍 순 우  
경기위원장: 강 민 석  
심판위원장: Michael Agosti  
홍보부장: Maureen Maher-Killelea

[www.masta.us](http://www.masta.us)




2016년 메사추세츠 주 태권도 협회원 가입현황

- 단계회원(\$200/년): 정제형, 허훈, 리치안, 홍순우, 김희용, 전명호, 강민석
- 정회원(\$100/년): 강창남

370 Boston Tpk., Shrewsbury, MA 01545  
Phone 508-792-5534 . FAX 508-767-0113

# 한인 업소록

## Korean Business Directory

###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제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메이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이동보호	617-494-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하	617-351-4500
펠러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선교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어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 주요 단체

국제결혼가정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결혼가정선교연합회(NC)	603-889-8201
뉴잉글랜드공공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전문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회	857-998-7043
재미한인회	339-298-7187
세탁인협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연합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야동회(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턴 신약회	978-569-3256
보스턴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등포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리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한인교회	603-437-5134
라이코스교회	603-264-6799
라이스한인침례교회	978-387-1115
로어일랜드성동교회	508-926-8236
로어일랜드제일교회	401-353-0983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944-2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617-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안식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장로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침례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세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617-833-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벨렘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올스톤교회	508-799-4488
우스타장로교회	781-354-1843
워싱턴프린더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성교회	617-770-2755
하버드 한인교회	617-441-5211

###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	--------------

###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어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 간판

조이스간판	617-470-1083
-------	--------------

### 건강식품

보스톤 정관장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핑사이드 청문	617-999-9616
이놀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센(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

### 공인 회계사

김영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대교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퓨어유)	617-777-2929
에이저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 냉동/에어컨/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7420

###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래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 떡/잔치/반찬(주문)

형제떡집	978-975-3303
참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알굴방	617-437-0378
송현미미용실	508-734-0446
순옥위너미용실	508-737-8636
신현칠미용실	617-947-6293
에이비미용실(채혜경)	617-868-2253
오성희미용실	617-275-3109
이경혜미용실	800-867-9000
이정선	617-535-7851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혜은미용실(EXT.125)	603-770-3491
정은숙미용실	617-236-8600
조현경미용실	508-249-5838
프루덴셜(이효숙)미용실	203-255-2800
프루덴셜(김종미)미용실	603-845-2138

### 돌상 대여/폐백

해피돌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 변호사

김경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9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9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지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셀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하버드뱅크(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우진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함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 양미아헤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

###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덕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추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턴컨테드케어	617-277-0648

###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주 치과	860-623-2601
키치소아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

#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 증상없다고 방치하면 합병증 생긴 후 인지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 "약물 요법보다 생활습관과 식습관 개선이 필수 요소,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받아야"

이번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위험성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하는 고혈압에 대해 세부적인 정보를 휴람 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의 도움을 받아 알아보겠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심혈관 질환 발병 확률이 정상인의 3배, 뇌졸중의 경우 7배나 높아진다. 혈관의 노화로 인해 남자 55세 이상, 여자 65세 이상에서는 고혈압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데, 부모가 모두 고혈압인 경우 자녀의 약 80%에서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고, 부모 중 한 명이 고혈압이면 자녀의 25~40% 정도에서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조절 불가능한 고혈압의 위험인자 외에도 비만, 운동부족, 스트레스, 흡연 등 개인의 생활습관 교정으로 고혈압의 위험인자는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

◎ 우리가 몰랐던 고혈압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사람의 혈관 내 압력은 수시로 변하며 운동을 하면 올라가고 안정을 취하면 내려가는데, 안정 시 측정된 혈압이 두번 이상 140/90mmHg 이상이 되면 고혈압이라고 한다. 정상 혈압은 120/80mmHg 이하이고, 120/80mmHg~140/90mmHg 사이를 전 단계 고혈압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고혈압은 증상이 없다. 하지만 혈압이 매우 높거나 오래되어 합병증이 생긴 환자는 머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해지거나 숨이 가쁘고 몸이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외에도 쉽게 피곤해지거나 불면증, 구토, 가슴 답답함 등의 증상을 호소하게 된다. 이러한 고혈압의 증상은 개인차가 매우 심

해 혈압이 높아도 증상이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혈압이 조금만 올라가도 심한 증상이 생기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고혈압 환자들은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생활하다가 합병증이 생겨 고혈압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혈압 측정을 하는 것이 좋다.

◎ 고혈압, 꼭 치료해야 하나요? : 고혈압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약물요법보다 자신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체중 관리를 하고 술과 담배를 삼가며 적절한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도모하는 것이 좋다. 고혈압은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 특히 약 복용 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게 되면 혈압은 다시 오르게 되며, 혈압이 매우 높아 많은 양

의 약을 복용한 경우였다면 급격한 혈압 상승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고혈압의 합병증은 뇌졸중이나 심부전증, 협심증이나 급성 심근경색증 등 한번 발생하면 생명을 위협하거나 회복된다 하더라도 신체 기능 이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 생활습관으로 조절 가능한 고혈압의 위험인자 : ① 비만 : 살이 찌면 더 많은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심장과 혈관에 부담 증가해 혈압이 올라가게 된다. 비만은 정상 체중에 비해 고혈압 발생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하며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등 연관 질환도 발생한다. 10kg 체중 감소 시 25/10mmHg의 혈압감소 효과가 있다.

② 운동부족 : 운동은 심장 기능의 강화에 중요한 요소로 운동 부족 시 비

만 가능성이 증가한다.

③ 흡연/음주 : 니코틴과 각종 유해물질은 혈관 손상을 유발해 아드레날린 호르몬의 증가로 혈압을 상승시킨다. 일산화탄소가 산소 부족을 초래하고, 신체가 더 많은 산소 배달을 요구하게 된다.

④ 소금섭취 : 하루 20g 이상의 염분 섭취 시 혈관이 수축되고, 말초혈관의 저항성이 증가해 체내 수분 저류로 혈압이 상승하게 된다.

⑤ 스트레스 : 아드레날린 호르몬의 분비로 혈압 상승하며, 일시적으로 고혈압이 발생한다.

⑥ 수면 무호흡증 : 산소부족과 괴로도를 높인다.

◎ 고혈압에 좋은 음식 : ① 시금치 : 짙은 녹색의 보석 같은 채소인 시금치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

하다. 또한 칼륨, 엽산, 마그네슘과 같은 심장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 들어있다. 이런 성분은 혈압을 낮추며 혈압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들에게 좋은 음식이다.

② 마늘 :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고혈압에 도움을 준다.

③ 양파 : 양파에 들어있는 항산화제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인 케르세틴 성분이 수축기와 확장기의 혈압을 모두 감소시켜준다.

④ 감자 : 감자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몸속 칼륨량이 낮으면 신체는 너무 많은 양의 나트륨을 함유하게 되는데, 이 때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먹게 되면 나트륨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특히 칼륨과 마그네슘은 혈류를 개선시키는 데 중요한 성분으로 고혈압을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⑤ 바나나 :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20mg의 칼륨이 들어있다. 칼륨은 효과적으로 신장 기능을 향상시키고 뇌졸중 위험을 감소시키는 한편 나트륨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기도 한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바나나 2개를 먹으면 혈압을 10%나 낮출 수 있다고 한다.

⑥ 다크 초콜릿 : 미국의학협회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약 30칼로리에 해당하는 다크 초콜릿 한 조각을 18주 동안 매일 먹는 사람은 체중 증가나 다른 역효과 없이 혈압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분말이 70% 이상 든 씹을만한 맛의 다크 초콜릿만이 고혈압에 좋은 음식으로 효능을 발휘한다.

**BOSTON GONSTEAD CHIROPRACTIC**

“카이로프랙틱이란?” : 우리 몸은 남녀노소 모두 33쌍의 척추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뇌로부터 이 신경을 통해 신호를 몸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전달해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충격, 폭풍사나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척추가 어긋나게 되면서 척추신경 압박 및 압통으로 뇌로부터의 신호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여 우리 몸에 통증과 같은 이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척추의 어긋난 곳을 정확하게 찾아 가장 안전하게 바로잡는 것이 바로 카이로프랙틱입니다.

개인기법 스페셜

- 카이로프랙틱 상담
- 당일 척추 정자 (200~300,000)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요보험: 일반보험(PO), 후쿠메이, 학교/유학생/이동자/교통사고 보험 등 다수



**원장 : Dr. 유정호, D.C.**  
(Dr. Jeongho Yoo, D.C.)

- Graduated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Seminar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Methodology Institute
- Certified International Board of Extremity Chiropractors
- 한양대학교 졸업 및 ROTC 47기
- Active license in MA(#3524)

**진료과목**

- 척추계통 : 목 / 목 / 허리 / 골반 통풍, 디스크 질환
- 사지계통 : 어깨, 무릎, 손목, 발목, 턱관절 통증
- 신경/순환 계통 : 손발 저림, 좌골신경통, 두통, 알러지, 소화불량
- 교통/재정/운동 사고: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후유증 해소
- 어린이/학생/성인 자세 관련 통풍 및 척추측만 교정

**진료시간**

월~금(M-F) : 9am-5pm  
토(Sat) : 10am-12am  
일(Sun) : Closed



## '형', 뻘한 브로 코미디? 조정석X도경수의 심폐소생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영화든 드라마든 전혀 새롭지 않은, 닭살 돋을 만큼 시시한 장면도 관객에게 웃음과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건 배우의 공일 가능성이 크다. 해당 장면을 구성하는 연출에는 감독의 미장센과 음향, 음악 등 다수 요소들이 있지만, 배우의 연기력 자체가 제대로 전제돼 있어야 그 효과도 극적으로 전달 될 수 있다. 그 때문에 제 아무리 특별한 것 없는 뻘한 작품이라 할 지라도 배우를 잘 만난다면 적어도 웃음과 감동을 주는 상업영화의 구실은 갖출 수 있다는 얘기가. 배우 조정석과 도경수가 영화 '형'을 심폐소생했고, '형'은 뻘하지만 배우들 덕분에 웃음을 줄 수 있는 작품이 됐다.

분이 되지 않을 만큼 현실감 넘치는 말투들로 관객들의 웃음을 자극한다. "예측 불가능한 호흡을 늘 고민한다"는 조정석의 말처럼, 예상 밖의 리듬감과 특정 상황에서 비롯된 리액션으로 코미디 장르의 미덕을 다한다. 도경수는 시각 장애인 연기부터 조정석과의 호흡까지, 비극과 희극을 넘나드는 폭넓은 활약으로 다시 한 번 자신의 잠재력을 입증한다. 극의 전개와 대사 자체가 인위적이지만 고두영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보여준 도경수 덕에 몰입도는 높아진다. 진지한 연기 톤에서도 조정석과의 호흡에서 의외의 코미디를 만들어내는 순발력도 인상적이다.

조정석은 애드리브인지, 실제 대사인지 구

aluem\_chang@news1.kr



## '무한도전' 박명수X정준하, 북극곰 만났다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무한도전'에서 북극곰과의 교감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오는 26일 오후 6시20분 방송되는 MBC '무한도전'의 '북극곰의 눈물' 편은 지난 1월 방송된 '행운의 편지' 마지막 미션의 일환이다.

해당 미션은 당시 유재석이 동물들의 아버지 정준하에게 "이번엔 북극곰을 만나 교감을 나누고 오라"는 편지로부터 시작됐다.

북극곰을 만나러 떠나기에 앞서 '무한도전' 멤버들은 MBC 명품 다큐멘터리 '북극의 눈물', '남극의 눈물'을 연출한 조준묵, 김진만 PD를 만났다. 동물 전문 다큐멘터리 PD들에게 야생 동물을 촬영하는 방법, 영화 20도 이

하의 극지방에서 촬영할 때 노하우, 만약 북극곰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이번 촬영에 필요한 팁을 얻었다.

모든 준비를 끝낸 정준하와 박명수는 북극곰을 만나기 위해 캐나다 처칠로 향했다. 캐나다 처칠은 11월 평균 기온 영하 25도로, 북극곰의 여름 서식처와 가까이 있고 북극해와 붙어 있어 겨울이 되면 북극곰이 여름잠에서 깬 후 북극해로 이동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10~11월께 1000여마리의 북극곰들이 북극해가 얼기를 기다리며 이곳에 머무르게 된다.

과연 정준하와 박명수는 어떤 북극곰을 만나 어떻게 교감을 나누게 될지 기대된다.

aluem\_chang@news1.kr



## 영화 '판도라', 4년 대장정 상상 초월 제작 과정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원전 재난 블록버스터 '판도라'가 상상을 초월하는 스케일의 제작기 영상과 현장 스틸을 공개했다.

영화 '판도라'(감독 박정우)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강진에 이어 한반도를 위협하는 원전사고까지, 예고 없이 찾아온 대한민국 초유의 재난 속에서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평범한 사람들의 사투를 그린다.

국내 최초 원전을 소재로 한 초대형 재난 블록버스터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실제 재난 상황과도 같은 리얼함을 극대화하기 위해 쏟아 부은 제작진과 배우들의 노력이 공개돼 눈길을 모은다.

이번에 공개된 제작기 영상은 사상 초유의 재난을 완성하기 위한 엄청난 스케일의 제작 과정을 숫자를 통해 알기 쉽게 풀어준다. 박정우 감독과 제작진은 시나리오 초기 단계부터 캐스팅, 촬영, 후반 작업까지 4년이라는 대장정 끝에 '판도라'를 완성했다.

제작진은 "실생활과 밀접해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조사하고 공부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사소한 부분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음을 강조했다. 강승용 미술 감독은 "발전소 토목 공사부터 완성까지 4개월이 걸렸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영상에는 전국을 혼란에 빠트린 초유의 사태를 그리기 위해 6280명의 배우들과 504명의 스태프들이 동원된 대규모의 촬영 현장과 한국 영화 사상 유례 없는 방대한 양의 CG작업, 전국 방방곡곡을 누빈 로케이션까지 속속들이 담겨있다.

'판도라'는 '베테랑' 촬영, '부산행' 시각효과, '변호인' 음악 등 대한민국 최고의 제작진과 김남길, 김영애, 문정희, 정진영, 이경명, 강신일, 김대명, 유승목, 김주현 그리고 김명민 등 믿고 보는 배우들이 총출동해 기대를 모은다. 내달 7일 개봉.

uu84@news1.kr

# 한주간



# 시청률 순위

2016년 11월 14일 ~ 2016년 11월 20일

##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월계수양복점신사들)	29.5%
2	KBS1	일일연속극(별난가족)	24.6%
3	KBS2	일일드라마(여자의비밀)	19.2%
4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9.0%
5	KBS1	KBS9시뉴스	16.3%
6	SBS	드라마스페셜(푸른바다의전설)	15.8%
7	MBC	무한도전	14.9%
8	KBS2	해피선데이	13.9%
9	KBS1	가요무대	13.3%
9	SBS	아침연속극(사랑이오네요)	13.3%

## Tbo Play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월계수양복점신사들)
2	SBS	TV소설(저 하늘의 태양이)
3	SBS	주말드라마(우리갑순이)
4	MBC	주말드라마(불어라미풍아)
5	MBC	MBC아침드라마(좋은사람)
6	MBC	일일연속극(행복을 주는 사람)
7	SBS	아침연속극(사랑이오네요)
8	MBC	일일연속극(다시시작해)
9	MBC	주말특별기획(아버님제가모실게요)
10	MBC	MBC아침드라마(언제나 봄날)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 한주간 음원 차트 순위 10

01	TT	TWICE
02	불장난	BLACKPINK
03	우주를 줄게	볼빨간사춘기
04	가끔 (Feat. Crush, 기리보이)	빅스
05	11:11	태연
06	너무너무너무	아이오아이
07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한동근
08	남아있어 (Feat. Crush)	로꼬
09	내가 저지른 사랑	임창정
10	널 너무 사랑해서 (Feat. 정은지)	MC 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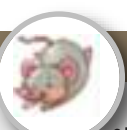
## 숫자 퍼즐 (Sudoku)

5			6	8		1		4
9		4		3		6	7	
		3					9	2
			4	7				
	5						8	
				6	1			
6	9					5		
	1	8		2		9		3
3		5		1	6			8

11월 27일 - 12월 3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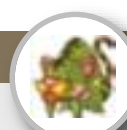
### 쥐띠 | 유리하게 작용할

● 운수: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보게 되니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됩니다. 에너지가 상승하니 건강은 회복되고 행복해집니다. ● 금전: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금전적으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 애정: 그리 깊게 알지 않았던 사람과 갑자기 가까워집니다. 알게 되는 것이 많을수록 이해하는 마음도 커집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7, 30일 길일, 29, 2일 주의.



### 소띠 | 웃으면서 즐겁게

● 운수: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려운 데를 알아서 긁어주니 너무도 시원할 것입니다. ● 금전: 과거에 베푼 일로 크게 보답 받는 일이 있습니다. 성의를 생각해서 웃으면서 즐겁게 받아들이세요. ● 애정: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고 믿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것인지 모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7, 1일 길일, 30, 3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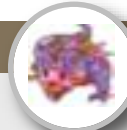
### 범띠 | 깊이 생각해보아야

● 운수: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의 능력에 무리가 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세일을 하거나 단순히 싸다고 해서 구입하지 마세요. 절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소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애정: 막상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니 한편으로는 시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후회하게 됩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9, 2일 길일, 1, 3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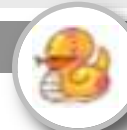
### 토끼띠 | 치유되고 아물면서

● 운수: 기다리던 소식을 듣게 되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바쁘게 움직여야 하니 시간이 너무도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 금전: 매때나 거래를 하기에 유리한 때입니다. 부지런하게 다니는 만큼 들어오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 애정: 아직까지 마음의 주름이 퍼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치유되고 아물면서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8, 3일 길일, 29, 2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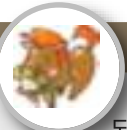
### 용띠 |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 운수: 바람직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시기가 아니니 어떤 일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조용히 지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 금전: 공적인 일보다는 사적인 일로 지출이 늘어납니다. 나가는 돈은 있어도 기본 충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혼란스러워집니다. 그 어느 때보다는 냉철한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8, 30일 길일, 27, 3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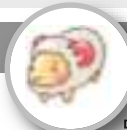
### 뱀띠 |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 운수: 혼자 결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금전: 어떤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침착하게 잘 살펴보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상대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7, 2일 길일, 28, 3일 주의.



### 말띠 | 기분전환이 필요한

● 운수: 기분전환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큰 돈 들이지 않아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 금전: 금전 출입이 많을 것입니다. 들어오는 돈도 있지만 나가는 돈도 많아지니 주머니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 애정: 다소 이기적으로 보일지라도 지금은 아무 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보다 자신부터 먼저 챙겨야 합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8, 1일 길일, 27, 29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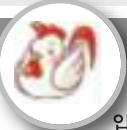
### 양띠 | 한 단계 발전할

● 운수: 모처럼 마음껏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단계 발전할 것이니 희망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 금전: 유용하게 보낼 수 있는 때가 왔으니 계획대로 추진해도 되겠습니다. 행운이 따라줄 것이니 큰 이익도 생각합니다. ● 애정: 무너지기 어려울 것 같았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두 사람 사이에 마음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9, 2일 길일, 27, 3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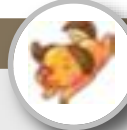
### 원숭이띠 | 대책을 세워놓아야

● 운수: 눈치껏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눈치가 없으면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지도 못하고 자기 것도 챙기지 못합니다. ● 금전: 꼭 들어와야 할 돈이 들어오지 않아 애를 태울 수 있습니다. 다른 대책을 세워놓아야 할 것입니다. ● 애정: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거리가 멀어집니다. 더 큰 틀어지기 전에 미리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30, 2일 길일, 28, 1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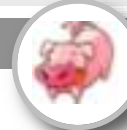
### 닭띠 | 금상첨화의 운세

● 운수: 금상첨화의 운세이니 좋은 일들이 겹쳐서 들어올 것입니다. 서로의 뜻이 합쳐지면서 바라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 금전: 실속이 있는 때입니다.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들어오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 애정: 가슴을 요동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7, 1일 길일, 28, 29일 주의.



### 개띠 |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 운수: 다른 사람이 주는 정보만 믿고 따라가다가는 낭패를 겪게 됩니다.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 금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지나친 자신감은 손해를 부릅니다. 새로운 투자는 구입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합니다. ● 애정: 아무런 말도 없이 일을 저지르는 사람 때문에 당황하게 되거나 피곤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8, 2일 길일, 30, 3일 주의.



### 돼지띠 | 신중하게 행동해야

● 운수: 가족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두고만 보지 말고 다시 한 번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 금전: 한순간의 실수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 애정: 지금 사실대로 말하면 문제가 될까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9, 3일 길일, 28, 1일 주의.



## 소문난 잔치 '도깨비', tvN 메가히트?

(서울=연합뉴스) 명희숙 기자 = 히트 메이커가 모두 모인 '도깨비'가 곧 베일을 벗는다. 배우부터 제작진까지 기대감을 자아내는 최고만이 모인 '도깨비'가 tvN의 새로운 메가히트 작품으로 이어질지 기대가 모아진다.

'도깨비'는 불멸의 삶을 끝내기 위해 인간 신부가 필요한 도깨비와 기억을 잃은 저승사자의 동거를 그린다. '태양의 후예' 김은숙 작가의 첫 판타지 작품이자 차기작으로 일찌감치 화제가 됐다. 여기에 오랜만에 브라운관에 복귀한 공유부터 이동욱 등 화려한 출연진이 가세했다.

김은숙 작가는 "저희 드라마는 이

상하고 아름답고 쓸쓸하고 찬란한 작품이다. 판타지를 하고 싶었다"며 "멋진 배우들과 작업을 하게 됐다. 하이라이트를 보고 신나더라. 너무 재밌고 소름끼치더라"라고 설명했다.

김은숙 작가는 이번 작품에 오랫동안 러브콜을 보낸 공유와 함께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유씨에게 5년에 걸쳐서 까였다. 이렇게 함께 작품을 하게 됐다. 이번 작품을 함께 하자고 했을 때 '저같은 소심한 도깨비라도 괜찮다면 하겠다'고 답하시더라"며 만족스러워했다.

공유는 "드라마가 두려웠다. 제가 특별해서 거절했던 건 아니다.

저의 문제였다. 제게 애정을 보여주셨던 것에 대한 감사인사였다"며 "그 자리에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 3시간 정도의 미팅이 제 마음을 열수 있는 시간이었다. 작가님만 믿고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출연 이유를 밝혔다.

김고은 또한 작품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전작들에서도 좋은 선배들과 함께 했다. 이번 작품에서 공유 선배와 함께해 즐겁게 촬영하고 있다. 개구장이 같은 면이 있다. 저와 성향이 비슷하다. 장난도 많이 치고 화기애애하게 촬영하고 있다"며 자랑했다.

reddgreen35@news1.kr



## '썰전' 문재인과 전화 연결 전원책 "대선서 붙자"

(서울=뉴스1스타) 강희정 기자 = '썰전' 이 녹화 중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전화 연결했다.

최근 진행된 JTBC '썰전' 녹화에서는 현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의 피의자 입건 소식과 국회에 박 대통령 탄핵추진을 요청한 야권 대선주자들의 회동 소식 등에 대해 얘기가 펼쳐졌다.

이날 전원책은 "(야당은) 탄핵을 서두를 필요 없다. 하지만 시간은 절대 야당의 편이 아니라는 걸 잠룡들이 알아야 한다"라며 지난 20일 있었던 야권 대선주자들의 회동에 대해 얘기

했다. 유시민은 "회동에 갔던 분 중, 국민 지지율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한테 물어 보자. 전화 한번 걸어볼까요?"라며 문재인 전 대표와 전화연결을 제안했다. 이어 녹화 도중 대구 촛불 집회에 참석 중이었던 문 전 대표와 '썰전' 패널들의 전화 연결이 이뤄졌다.

전화 연결을 이어가던 전원책은 "다음 대선에서 저하고 문 전 대표하고 같이 맞붙는 걸로 알겠습니다"라고 뜬금없는 선전포고를 해 웃음을 자아냈다.

hjk0706@news1.kr

## '라디오스타' 조우종 "과거 MBC 면접서 3초 만에 탈락"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방송인 조우종이 MBC 아나운서 시험을 봤던 경험을 고백했다.

조우종은 23일 밤 11시10분 방송된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의

'4대 보험은 끝났다! 구직자들' 특집에서 "자신을 3초 만에 탈락시킨 모 아나운서에게 억하심정이 있다던데"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MC 김구라는 "3초만에 탈락시킨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재용, 신동훈 아나운서냐"고 조우종을 떠봤고, 이에 넘어간 조우종은 "면접관은 손석희, 신동호"라고 털어놓아 웃음을 자아냈다.

aluem\_chang@news1.kr



###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형,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량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adisaction 10 min / Newton 20 min  
E-mail: sunautobody@yahoo.com

###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EA & NY) • BOARR • GDT • LMS AP  
MA REALTOR® • E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 건축 & 시공

2014 OTK De-Con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특수주택과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법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통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 TBO PLAY RATINGS

##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럭키' 유해진, 따라잡을 수 없는 코믹 연기의 神

(서울=뉴스스타) 유수경 기자 = 배우 유해진이 영화 '럭키'를 통해 따라잡을 수 없는 코믹 연기를 선보였다.

영화 '럭키'는 성공률 100%, 완벽한 카리스마의 킬러가 목욕탕 키(Key) 때문에 무명배우로 운명이 바뀌면서 펼쳐지는 초특급 반전 코미디다.

유해진이 1년 만에 선보이는 스크린 컴백작이자 특유의 코믹 연기를 자유자재로 풀어내는 작품이라 관객들의 기대가 높다. 시사회를 통한 관객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유해진은 살벌한 눈빛을 가진 칼잡이 킬러로 등장해 시종일관 진지한 모습으로 색다른 웃음을 선사한다. 웃음을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재치 있게 던지는 말이나 행동이 관객들의 허를 찌른다.

여기에 이준, 조윤희, 임지연 등이 가세해 신선한 즐거움을 주며 조한철과 전혜빈의 활약도 돋보인다. '아가씨', '뷰티 인사이드'를 제작한 옹필름이 제작했다.

uu84@news1.kr



#### 티보플레이 11월 3째주 시청률 BEST10

- |    |     |                 |
|----|-----|-----------------|
| 1  | KBS |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
| 2  | KBS | TV소설(저 하늘의 태양이) |
| 3  | SBS | 우리 갑순이          |
| 4  | MBC | 불어라 미풍아         |
| 5  | MBC | 좋은사람            |
| 6  | MBC | 행복을 주는 사람       |
| 7  | SBS | 사랑이 오네요         |
| 8  | MBC | 다시시작해           |
| 9  | MBC | 아빠님 제가 모실게요     |
| 10 | MBC | 언제나 봄날          |

#### 티보플레이 11월 3째주 신규 방송

- |   |     |          |
|---|-----|----------|
| 1 | SBS | K팝스타 시즌6 |
| 2 | KBS | 오마이금비    |
| 3 | MBC | 역도요정 김복주 |
| 4 | MBC | 황금주머니    |

#### 티보플레이 11월 3째주 최신 영화

- |   |         |     |
|---|---------|-----|
| 1 | 럭키      | 유해진 |
| 2 | 죽여주는 여자 | 윤여정 |

### '김복주' 이성경, 내숭 제로 역도요정

(서울=뉴스스타) 장아름 기자 = 배우 이성경이 스웬(SWAG) 넘치는 역도요정으로 연기 변신하며 통통 튀는 '복블리' 매력을 발산했다.

지난 16일 밤 10시 첫 방송된 MBC 새 수목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주'(극본 양희승, 김수진 / 연출 오현종)는 바벨만 들던 스물한 살 역도선수에게 닥친 폭풍 같은 첫사랑을 그린 감성 청춘 로맨스 드라마다.

극 중 이성경은 한일체대 2학년에 재학 중인 역도 유망주로 김복주 역을 맡았다. 그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의리파에 한없이 사랑스러운 모태 사랑둥이다. 이성경은 단발머리에 오동통하게 불살이 오른 외적 변신은 물론, 코믹한 대사와 털털한 성격 등 완벽하게 복주로 빙의된 모습이였다.

전작들을 통해 보여줬던 이미지와 180도 달리, 내숭이라고는 조금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신선한 캐릭터에 이성경만의 사랑스러운 매력이 더해져 '복블리(복주+러블리)'의 탄생을 알렸다.

aluem\_chang@news1.kr



TBO PLAY

보스톤권 지역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39.99**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도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Mnet, O'live, OCN

The Best Underworld, TBO

## 이정선 부동산

kw BOSTON-METRO KELLERWILLIAMS

**CHUNG S. LEE**

Mobile: 781.883.5984  
Office: 617.535.7851  
Fax: 617.542.0016  
chunglee7@gmail.com  
chunglee.kwrealty.com

607 Boylston Street, Suit 500  
Boston, MA 02116



**마이클 리 (Michael Lee, 978-314-8818)**  
 Insurance Broker, mlee.insurance@gmail.com  
 - License in Health, Life, Series 6, Series 63, Property & Casualty  
 - Health/Life/Annuities/Medicare/Disability/Group Benefit/Reinsurance 전문  
**Loan Officer, mike.lee@norcom-usa.com**  
 - NMLS # 1464242 / Real Estate License No. 9534498  
 - Government & Conventional Residential Loan

## Health Insurance 3

### 네트워크에 따른 의료보험의 종류

의료보험의 종류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종류라고 단정 짓기는 애매모호할 수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에서는 2006년 롬니 케어(Romney Care)를 시작으로 현재 오바마 케어(Obama Care) 정책에서도 여전히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매스헬스(MassHealth)와 커넥터 케어(Connector-Care)는 무료 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에 편당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종류를 중요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덮어두고 의료보험을 선택 시 주어지는 네트워크 옵션 중 어떤 "타입"의 플랜을 선택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네트워크 타입은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HMO),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PPO), Health Savings Account(HSA)가 있고 장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플랜 타입은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HMO)입니다. HMO는 네트워크 안에 속해있는 의사 또는 병원들이 있고 이 의사들을 통해 진찰과 치료를 받아야만 HMO타입 플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은 의사나 병원을 방문할 경우 HMO 타입 플랜은 가입자가 모든 부분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HMO 타입의 장점은 안전한 커버리지를 비교적 저렴한 월납부료에 가입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치의와 만나고 전문의를 봐야 할 때 의뢰를 받아 정해진 곳에 가서 진찰을 하고 검사를 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방식이 HMO 타입의 플랜이고 가장 흔히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응급실이나 긴급치료(Urgent Care)는 네트워크와 무관하게 커버가 되므로

다방면에서 안전한 플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MO 플랜 다음으로 흔히 가입하는 플랜은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PPO) 타입입니다. PPO 플랜은 의사/병원의 네트워크가 있지만 주치의의 의뢰 없이 다른 의사를 방문해 진찰과 치료에 보험 베네핏을 받을 수 있다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의료보험을 찾는 분들 중 오랜 시간 동안 진찰을 해왔던 여러 명의 의사들을 그대로 유지하길 원하지만 같은 네트워크에 속해있지 않을 때, 또는 의뢰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 없이 원하는 때 원하는 의사를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PPO 플랜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PPO 플랜은 네트워크 밖에서 진찰과 치료를 받을 시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가 올라가게 되고 먼저 치료비를 지불 한 후 서류로 보험처리를 해야 하기에 조금은 복잡할 수 있으며 가장 큰 부분은 의료보험료 자체가 HMO 플랜과 비교시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Health Savings Account (HSA) 타입이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플랜, HMO와 PPO는 의료비를 가입자가 일정한 금액의 코-페이, 디덕터블이나 퍼센트로 코-인슈어런스를 지불하게 되지만 HSA 플랜은 세이빙 어카운트에 저축을 하고 이 펀드로 의료비를 충당하게 됩니다. 월납부료는 지불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져 버리는 HMO, PPO 플랜과는 다르게 가입자가 지불하는 만큼의 혜택을 받으니 건강하고 정말 계획과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용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싼 플랜을 위해서 HSA 플랜을 가입한다면 너무나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건강상의 문제로 큰 검사나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 HSA 플랜은 오직 가

입자의 어카운트에 있는 금액만 지불을 하기에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용이한 점은 이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입금을 해두는 만큼의 세금 공지를 받을 수 있고 반면 플랜이 만료되기 전에 의료 관련으로 사용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잃을 수도 있으니 철저한 관리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프리미엄, 코-페이, 코-인슈어런스, 디덕터블, 아웃 오브 포켓 리미트

의료보험 혜택 차트를 보면 위와 같은 단어들 많이 등장합니다. 프리미엄은 간단히 월 납부액을 말하고 코-페이는 진찰이나 치료 시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정해진 금액, 코-인슈어런스는 코-페이와 비슷하지만 정해진 금액이 아닌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일정한 퍼센트를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HMO, PPO 플랜은 일반진료 시 일정 코-페이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있고 이 부분은 디덕터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진찰 외 큰 검사는 플랜마다 코-페이와 코-인슈어런스로 정해져 있어 건강상태나 필요에 따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대부분 코-페이 플랜 프리미엄은 비교적 높지만 보험 커버가 필요한 상황에서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코-인슈어런스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 상당의 검사를 필요로 한다면 \$150 코-페이 플랜은 \$150만 가입자 부담, 그 외는 보험에서 모든 부분을 커버하지만 30% 코-인슈어런스 플랜은 \$600을 가입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큰 비용이 드는 검사라면 코-인슈어런스 플랜은 그만큼 가입자의 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디덕터블입니다. 디덕터블은 보험에서 지급을 시작하기 전 가입

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흔히 알고 있는 자동차보험 디덕터블과 흡사합니다. 높은 디덕터블은 월납부료가 낮아지고 낮은 디덕터블은 월납부료가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 시 지급하는 코-페이는 디덕터블로 인정되지 않고 큰 검사와 수술시 필요한 의료비만 계산을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2,000 디덕터블의 플랜은 어느 검사와 수술시 코-페이 또는 코-인슈어런스 포함 \$2,000 미만의 의료비라면 모든 부분을 가입자가 부담하고 \$2,000이 넘을 시 그 외 모든 부분을 의료보험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덕터블과 비슷한 개념의 아웃 오브 포켓 리미트가 있습니다. 아웃 오브 포켓 리미트는 보험기간 동안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 최대의 부담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6,000 아웃 오브 포켓 리미트에 위치하면 \$2,000 디덕터블 리미트라면 \$2,000 미만의 검사와 치료를 아무리 많이 받게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가입 기간 동안 가입자가 결과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최고치 금액은 \$6,000을 넘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디덕터블과 아웃 오브 포켓 리미트는 매년 다시 시작을 하게 되고 보험사에 따라 조금의 유동성이 있지만 월말에서 다음연도 초까지 이어지는 검사와 수술이 있다면 조심하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오픈 엔롤먼트(Open-enrollment) 2017년부터 시작하는 플랜의 가입 기간은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이며 새로운 플랜의 1월 1일 시작을 원한다면 2016년 12월 15일 전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가입하거나 플랜 갱신 시 위의 내용을 참고로 커버리지를 꼼꼼히 살핀 후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커버리지를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 지난 한해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즐거움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보스톤코리아**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임직원 일동



# 신영의 세상 스케치

572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큰 녀석에게...

삶은 때론 버겁고 힘든 일이다. 인생은 참으로 멀고 험난하고 깊고 좁은 협곡을 오르내려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그래서 걷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걷고 쓰러지면 다시 몸과 마음을 챙겨 걷게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 이제는 삶이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아차리는 나이가 되었다. 한 남자의 아내로 만 27년을 살았고 세 아이의 엄마로 만 26년을 살다 보니 이제는 세상을 조금은 알 것 같다. 하지만 또 앞으로의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이다.

큰 녀석이 지난 5월에 보스턴 칼리지 법대(Boston College Law School)를 졸업했다. 그리고 7월에 변호사 자격증 시험(Bar Exam)을 치르고 9월에 NYU에 가서 공부를 더 하고 있다. Bar Exam 결과가 10월에 있을 거라는 얘기만 전해 듣고 엄마인 나는 한국 방문에 올랐다. 사실 내심 큰 녀석의 시험 결과가 어찌 됐을까 궁금하기도 하면서 한 편으로는 은근히 걱정이 일기도 했다. 한 번에 합격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

닐 테지만, 혹여 떨어지더라도 하면 그 어려운 시험공부 준비를 다시 또 해야 할 녀석이 안쓰러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국 방문 길에 올라 도착해 나의 계획된 일정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우리 다섯 가족 카톡방으로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큰 녀석이 변호사 시험(Bar Exam)에서 우선 Massachusetts 주의 시험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큰 녀석에게 고맙고 얼마나 기쁘던지 눈물이 다 나왔다. 그렇게 녀석에게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통화하며 축하를 해주었다. 그리고 한 열흘이 지났을까. 다시 한 번 온 가족(할아버지 할머니 등)이 함께하는 전체 카톡으로 Nw York 주의 시험에서도 합격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전해주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뉴욕 주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것은 더욱 축하할 일이다. 그것은 NY 주는 미국의 28개 주를 커버하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라는 것이다. 엄마는 법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없고 그저 곁에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만 해줄 뿐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시험에 합격했다는 얘기에 큰 녀석에게 고마운 마음과 함께 늘 지켜주시는 손길에 더욱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동안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공부에 열심이던 녀석에게 큰 박수를 전해주었다. 아들이기보다는 늘 엄마와는 친구같은 때로는 남편보다도 더 어려운 녀석이기도 하다.

이 녀석은 테네시 주 내슈빌에 있는 Vanderbilt University에서 Political Science(정치학)와 Philosophy(철학)를 복수 전공을 했었다. 그래서일까.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이 깊고 무엇인가 쉬이 결정하지 않고 사고하는 아이이다. 그래서 누나나 남동생이나 이 녀석에게 무슨 문제 사항이 있으면 제일 먼저 의논하고 그 후에 아빠와 엄마에게 의논하는 편이다. 아빠와도 한 번씩 이야기를 시작하면 두세 시간을 훌쩍 넘기며 이야기의 끝이 없는 부자지간이기도 하다.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엄마인 나도 덩달아 고맙고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 녀석을 보면 그 속에 내 삶이 고스란히 젖어 있다. 엄동설한의 추운 겨울날이 세상에서 처음 마주했던 엄마와 아들은 병원에

서 하룻밤을 채 함께 보내지 못하고 심장병이라는 병명으로 녀석은 큰 병원으로 옮겨졌었다. 그리고 그 이튿날부터 산모였던 엄마인 나는 산후조리는 생각해볼 여지 없이 병원을 들락거리며 가슴졸이며 이 녀석을 지켜보던 살얼음판을 걸었던 때였다. 그 때 처음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버거운 것인지 깨달았던 때였다. 이 녀석은 그래서 내게 참으로 가슴 아픈 녀석이고 참으로 자랑스런 녀석이다.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큰 녀석에게 먼저 큰 박수를 주고 싶다. 녀석이 앞으로 걸어가는 길에서 언제나 먼저 기도하는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엄마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한다. 부모의 마음은 모두 같으리라. 자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가짐과 행동 가짐이 그러하리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성실로써 누구의 말이나 위치에 치우치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법조인이길 바라는 마음이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매일 성찰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모든 일에 있어 열린 마음으로 마주하길.



## 한담객설閑談客說: 격양기擊壤歌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미국에 처음 왔을 적이다. 헛갈리는게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화폐단위는 말할 것도 없다. 꺾런과 리터, 파운드와 킬로그램은 오히려 견딜만 했다. 어려움은 거리계산에 있었다. 마일과 킬로미터 사이에서 자주 헛갈렸고, 머리가 여간 복잡하게 아니었다. 처음에 울적에 대부분 미국고속도로의 법이 정한 제한속도는 55마일였다. 도대체 55마일은 몇킬로미터인가. 그닥 궁금할 건 없는데, 혼란스러웠던 거다. 65마일은 한 100킬로미터 된다. 하지만 안개가 끼서 길을 볼수없다면, 제한속도는 소용없다. 어차피 천천히 달릴 수밖에 없다.

내게 최장의 거리는 500킬로미터였다. 서울과 부산사이의 거리인데, 그래봐야 300여 마일이다. 오래전 중부에서 서부로 이사를 가야 할 때다. 내 선친이 물으셨다. 얼마나 먼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냐. 숫자나 마일로는 설명할 수 없었다. 생각끝에 말씀드렸다. 서울과 부산을 적어도 네차례 왕복거리. 이사갈 곳은 2500마일 떨어져 있으니, 4000여킬로미터였던거다. '아이고, 멀기도 하다' 는 가벼운 선친의 탄식이 전화를 통해 들려왔다. 선친께서도 서울과 부산까지가 가장 먼 거리였다. 그보다 먼 거리는 당신의 상상想像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다.

중국 요순시절 격양기擊壤歌이다. 태평성대에 부르는 노래인데, 백성은 배부르고 등이 따스다면 누가 임금이지 상관없다는 게다. 임금이 멀리있건 가까이 있건 문제 없다는 말일게다.

해가 뜨면 일하고/해가 지면 쉽다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밭을 갈아서 먹으니  
임금의 덕/힘력인들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격양기擊壤歌)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다. '힘은 두 물체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한다.' 피차 느끼는 힘은 거리가 멀면 멀수록 작다는 소리다. 역시 과학자들은 하나하나 한 소리를 어렵게 말한다. 세상이 어수선하기도 하다. 그동안, 내게 임금님들은 아주 먼 곳 구중궁궐에 머물고 있었다. 그 양반들의 힘이 내게 미치지 못하는 듯 했던 거다. 그렇다고 나만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다는 말은 아니다. 그런데, 요사이에는 청와대나 백악관까지 가는 거리가 좁혀진 것인가. 먼곳에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상관없어야 할 지도자들이 성큼 우리에게 다가선듯 하다. 심지어 애들 입에서도 그분들의 이름이 함부로 오르내리니 말이다. 차라리 이걸 두렵다.

거리가 가깝다 해도 안개가 자욱하면, 앞을 볼수는 없다. 어둡다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알 수없다. 앞이 보이지 않는거다. 이걸 내 생각이다. 임금은 너무 가까우면 부딪친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덕이 미치지 못할까 한다.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인게라. 가가可呵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하는구나 (욥 17:12)

Prime Motor Group

A new kind of car buying experience.



A new kind of car buying experience



**2017 Hyundai Elantra SE**

**Key vehicle features:**  
 170-hp SmartSense 2.0L I4 Gas, 6-Speed DCMT, 180MPG

MSRP As shown: \$17,130

<b>LEASE</b> \$69/mo.	<b>PURCHASE</b> \$15,631	<b>FINANCE</b> 0.9% APR
• 36-month lease • 10,000 miles per year • \$1,000 down payment	MSRP: \$17,130 Incentive: \$1,500 Price As Shown: \$15,631	Residual: \$12,000 Customer: \$1,000 Finance: \$1,631 *Subject to credit review. See dealer for details.

**2016 Hyundai Elantra SE**

**Key vehicle features:**  
 170-hp SmartSense 2.0L I4 Gas, 6-Speed DCMT, 180MPG

MSRP As shown: \$17,130

<b>LEASE</b> \$89/mo.	<b>PURCHASE</b> \$13,290	<b>FINANCE</b> 0% APR
• 36-month lease • 10,000 miles per year • \$1,000 down payment	MSRP: \$17,130 Incentive: \$3,840 Price As Shown: \$13,290	Residual: \$13,290 Customer: \$0 Finance: \$0 *Subject to credit review. See dealer for details.

**2016 Hyundai Accent GLS Sedan**

**Key vehicle features:**  
 148-hp SmartSense 1.8L I4 Gas, 6-Speed DCMT, 24-25MPG

MSRP As shown: \$12,130

<b>LEASE</b> \$119/mo.	<b>PURCHASE</b> \$12,798	<b>FINANCE</b> 0% APR
• 36-month lease • 10,000 miles per year • \$1,000 down payment	MSRP: \$12,130 Incentive: \$438 Price As Shown: \$12,798	Residual: \$12,798 Customer: \$0 Finance: \$0 *Subject to credit review. See dealer for details.

**2017 Genesis G80 3.8**

**Key vehicle features:**  
 Premium 3.8L V6, 240-hp, 8-Speed DCMT, 24-25MPG

MSRP As shown: \$45,130

<b>LEASE</b> \$419/mo.	<b>PURCHASE</b> \$45,500	<b>FINANCE</b> 1.9% APR
• 36-month lease • 10,000 miles per year • \$2,000 down payment	MSRP: \$45,130 Incentive: \$0 Price As Shown: \$45,500	Residual: \$34,000 Customer: \$1,500 Finance: \$1,000 *Subject to credit review. See dealer for details.

**2017 Hyundai Santa Fe Sport**

**Key vehicle features:**  
 240-hp SmartSense 2.4L I4 Gas, 6-Speed DCMT, 24-25MPG

MSRP As shown: \$23,130

<b>LEASE</b> \$129/mo.	<b>PURCHASE</b> \$23,527	<b>FINANCE</b> 0.9% APR
• 36-month lease • 10,000 miles per year • \$2,000 down payment	MSRP: \$23,130 Incentive: \$0 Price As Shown: \$23,527	Residual: \$23,527 Customer: \$0 Finance: \$0 *Subject to credit review. See dealer for details.

**2017 Hyundai Tucson SE**

**Key vehicle features:**  
 178-hp SmartSense 2.0L I4 Gas, 6-Speed DCMT, 24-25MPG

MSRP As shown: \$20,130

<b>LEASE</b> \$175/mo.	<b>PURCHASE</b> \$20,248	<b>FINANCE</b> 0% APR
• 36-month lease • 10,000 miles per year • \$2,000 down payment	MSRP: \$20,130 Incentive: \$118 Price As Shown: \$20,248	Residual: \$20,248 Customer: \$0 Finance: \$0 *Subject to credit review. See dealer for details.

**2017 Hyundai Sonata SE**

**Key vehicle features:**  
 185-hp SmartSense 2.0L I4 Gas, 6-Speed DCMT, 24-25MPG

MSRP As shown: \$18,130

<b>LEASE</b> \$129/mo.	<b>PURCHASE</b> \$18,197	<b>FINANCE</b> 0% APR
• 36-month lease • 10,000 miles per year • \$1,000 down payment	MSRP: \$18,130 Incentive: \$67 Price As Shown: \$18,197	Residual: \$18,197 Customer: \$0 Finance: \$0 *Subject to credit review. See dealer for details.

**2017 Hyundai Santa Fe SE**

**Key vehicle features:**  
 240-hp SmartSense 2.4L I4 Gas, 6-Speed DCMT, 24-25MPG

MSRP As shown: \$29,130

<b>LEASE</b> \$189/mo.	<b>PURCHASE</b> \$29,003	<b>FINANCE</b> 0% APR
• 36-month lease • 10,000 miles per year • \$1,000 down payment	MSRP: \$29,130 Incentive: \$127 Price As Shown: \$29,003	Residual: \$29,003 Customer: \$0 Finance: \$0 *Subject to credit review. See dealer for details.

한국인 딜러

**Earl Ko** 고을  
 Authorized Hyundai Dealer  
**617.755.6941**

"Leases exclude tax, title, acquisition fee. 10k miles per year. \*All qualified rebates to dealer. \*\*Must take delivery same day from dealer stock. PURCHASE OFFER – Price includes Valued Owner or Competitive Owner Coupon, Military Rebate, College Grad Cash, Flex Coupon (1) Prime Cash Discount available to all customers. (2) Retail bonus cash available on select Hyundai models purchased from dealer stock and financed through HMLT by 10/31/2016. Customers who participate in a Special Lease or Low APR program through Hyundai Motor Finance (HMF) do not qualify for Retail Bonus Cash. \*\*\* With approved credit only. FINANCE: Available to qualified applicants, not all will qualify.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1.9% APR for 60 months is 60 monthly payments of \$17.48 for every \$1,000 borrowed. All offers expire 10/31/2016."



**Prime Hyundai South**  
 1022 Hingham St. Rockland MA 02370  
**PrimeHyundaiSouth.com**



독자기고  
김철

##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20. 새 길을 찾아서 (5)

**발견의 원칙(Doctrine of Discovery) (계속)**  
인디언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잘못된 법원의 판결을 번복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의회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그릇된 인디언 관련법들을 바로 잡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또 한 번 크게 왜곡되는 케이스가 19세기 중반과 후반 중 미국이 본격적으로 팽창해 가던 시절에 벌어졌다. 미국이 동부에서 시작하여 서부로 개척해 가면서 미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확산시켜 태평양에 이르게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미국인에게 지워준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명백한 운명'이라는 말은 오설리번(John L. O'Sullivan)이라는 한 젊은 칼럼니스트가 1845년에 쓴 에세이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이 칼럼에서 텍사스 병합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이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이 말이 널리 퍼져 나가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시대의 유행어가 되었다. 이 사상은 백인들에게 꿈과 프론티어 정신을 고취시키는 데에는 더할 나위 없이 희망에 찬 메시지를이었겠지만 밀려오는 백인들의 행렬로 인하여 서쪽으로 계속 쫓겨 가야 하는 운명의 인디언들에게는 피눈물을 불러오는 저주의 노래이었을 것이다. 이 희한한 선동 구호는 평원 인디언들과 서남부와 로키 산맥 너머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땅을 빼앗는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일에 이념적 근거로 사용되었다. 그 '명백한 운명'의 이념을 게스트(John

Gast)라는 화가는 1872년 '미국의 전진(American Progress)'이라는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게스트(John Gast)가 그린 '미국의 전진(American Progress)', 1872년〉

### 마셜의 3대 판결(Marshall Trilogy)

미국 역사상 최장수(1801년 1월 31일 - 1835년 7월 6일) 기록을 세운 마셜(John Marshall) 대법관(Chief Justice)은 미국 사법부의 권한을 확립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인디언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세 개의 역사적인 판결(Marshall Trilogy)을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첫째의 판결은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발견의 원리의 연장선상에서 인디언 땅은 오로지 연방정부만이 거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판결은 연방정부와 인디언 부족국가간의 관계를 설정했다. 부족 국가는 외국과는 다른 주권국가로서 미국정부의 주권 안에 존재하는 종속적인 주권만을 가지는 것

으로 이는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로 비유된다고 설명했다. 인디언 주권은 태초로부터 존재하여 유럽인들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주권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미국정부는 인디언의 땅을 가져간 대가로 인디언에게 집과 의복, 식량 등을 지원하여 인디언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세 번째로, 인디언 부족 국가에는 주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우스터(Samuel Worcester) 선교사가 조지아 주 법을 어기고 체로키 네이션에서 선교활동을 한 것을 트립 잡아 체포하여 투옥하자 체로키 네이션은 이의 부당성을 대법원에 제소하였는데 대법원은 체로키의 손을 들어주어 조지아 주법은 인디언 나라에서는 효력이 없음을 선언했다. 그러나 당시 잭슨 대통령과 길머(George Rockingham Gilmer) 조지아 주지사는 우스터를 석방하지 않았다.

### 빼앗긴 부족의 땅 되찾기

19세기 후반 인디언 전쟁의 핵심에는 수우 인디언의 성산 블랙힐즈가 있다. 이 산을 어떤 수를 써서라도 손에 넣어야겠다는 연방정부와 무슨 대가를 치루더라도 꼭 지키겠다는 라코타 인디언 사이에 벌어진 전쟁으로 카스터 장군을 포함한 수백 명의 미군이 사망하고 인디언 측에서도 적지 않은 희생자가 나왔다. 수우 인디언 전쟁은 1890년 12월 29일 발생한 운디니 대학살 사건으로 끝이 났으나, 수우 인디언들은 결코 블랙힐즈를 포기하지 않았다.

1920년부터 수우족은 전쟁을 통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법률상의 클레임을 제기하여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만약에 블랙힐즈를 넘겨주지 않으면 정부배급을 중지하겠다고 수우족을 협박하여 1877년에 미국정부가 양도 받았으나 이는 1868년에 체결된 라라미 조약을 위반하였다고 수우 족은 주장해왔다. 동라라미 조약에 의하면 수우족 부족의 땅을 남에게 넘길 때에는 수우족 인디언 성인 남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조건을 어긴 양도 계약은 무효라는 것이다. 6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드디어 1979년 6월 13일 미국클레임법원(The United States Court of Claims)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가 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여 연방대법원에 최종심판을 요청하였다. 1980년 6월 30일 연방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수우 인디언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법원은 블랙힐즈를 인디언에게 반환하는 대신에 경제적 보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채택하여 미국정부는 그동안의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총 106백만 달러를 수우 인디언 측에 지불할 것을 결정하였다. 수우족이 진정 원하는 것은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블랙힐즈를 온전히 돌려받는 것이다. 따라서 수우 측은 보상금 수령을 거부했다. 인디언당국에서 그 돈을 보관중인데 그 동안 복리 이자 효과로 예치된 금액이 1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 호에 계속)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55 화랑세기花郎世紀, 5세 풍월주風月主 사다함斯多含(7)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왕이 슬라瑟羅에 갈 때 황후궁의 궁인으로 삼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했다. 황후가 그것을 알고 ..., 왕이 그것을 걱정을 했다. 이에 금진을 ... 에서 나가 살게 했다. ...]

이 부분의 필사본, 첫 구절은 탈자가 꽤 많다. 그래서 정확한 해독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곳의 내용과 비교 검증해보면 충분히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구절이다. 위의 내용의 시대적 배경을 먼저 보면 548년에서 557년 사이의 일들이다. 신라 장군 주령이 왕명으로 백제를 지원하려고 독산성 전투에 출정한 연도가 진흥왕 9년 2월(548년)로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사다함의 아버지 구리지는 주령을 따라 독산성으로 출정했다가 전사하였다. 진흥왕이 534년 생으로 7세(삼국유사에는 15세)에 왕위에 오른 것으로 보기에 구리지가 죽을 당시 진흥왕은 14.5세 였다. 그리고 진흥왕의 맏아들인 동륜이 출생한다. 동륜의 출생연도는 정확하게 사서에 나와 있지 않다. 다만 그가 사망한 년도는 572년이다. 삼국사기에는 진흥왕 27년(566년) 어린 나이로 태자에 책봉되었다. 즉 진흥왕이 32세 경이었는데 다만 동륜이 '어린 나이'에 태자로 책봉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승려로도 출가했다는 기록과 함께 572년에 비명횡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화랑세기에는 아버지 진흥왕의 후궁인 보명궁주를 만나려 담을 넘다가 개에게 물려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고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것으로 보인다. 그가 태자로 책봉된지 6년만에 죽었다. 그리고 죽을 당시 벌써 여자를 알아서 아버지의 후궁들하고 통정을 하였다. 그렇다면 아마도 15세는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해보면 동륜의 출생연도는 대략 557년 전후로 보인다. 그는 보명궁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진흥왕의 후궁인 미실과도 사통하였다. 원래 미실은 진흥왕의 이부동생인 세종전군의 처로 입궁하였다.

금진의 언니 옥진은 금진과 구리지의 결혼을 반기지 않았다(아마 그래서 후궁의 입김으로 구리지를 독산성 전투로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금진은 구리지가 독산성으로 출전한 후에 구리지의 용양신 설성과 사통하였다. 구리지는 전사하였고, 설성은 금진의 남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설원랑을 생산하였다. 즉 설원랑은 사다함과 동복이부 형제이다. 그 무렵 진흥왕의 맏아들 동륜이 태어났다. 진흥왕의 왕비는 사도이며 그는 박영실과 옥진의 딸이다. 사도왕후는 금진을 유모로 입궁시켰으며, 금진의 교태를 지소태후가 허락하지 않았지만, 결국 진흥왕은 슬라瑟羅(188)로 행차할 때 금진을 동행시켰고 곧 임신을 하여 태어난 딸이 난성공주이다.

188) 슬라는 아슬라주阿瑟羅州로 명주溟州(현 강원도 강릉 일대)의 옛 명칭이다. 명주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행정구역을 9주5소경으로 나누었을 때의 한 주째다.

신문왕5년(685년)에 행정구역을 9주5소경으로 나누었다. 9주는 통일전의 신라와 백제 그리고 고구려의 영토에 각각 3주씩을 두었다. 당시 9주는 상주(현 경북 상주), 양주(경남 양산), 강주(경남 진주), 한주(경기 광주), 삭주(강원 춘천), 명주(강원 강릉), 응주(충남 공주), 전주(전북 전주) 그리고 무주(광주광역시)이다. 주의 장관은 총관總官이며 주 밑에는 군, 현을 설치했다. 군에는 태수, 현에는 현령/소수가 있었다. 모두 중앙에서 관리가 파견되었다. 5소경은 통일 전의 국원경(557년 진흥왕 때 충주에 국원소경을 설치하였다)을 비롯하여 문무왕 때 복원경과 금관경, 신문왕 때 서원경과 남원경이 설치되었고, 경덕왕 때 국원경이 중원경으로 바뀌어서 완성되었다. 5소경은 왕경인 경주가 동쪽에 치우친 결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지방세력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것이었다. 5소경은 금관경(김해), 중원경(충주), 복원경(원주), 서원경(청주), 남원경(남원)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이어지는 화랑세기, [구리지가 말하기를 “신이 나이가 젊어 동동 ... 어찌 어신여김이 이와 같은가?” 했다. 금진 ... “... 일찍이 가듯 했을 따름이다. 지난날에 너로서 ... 아버지이다. 오늘은 너로서 부족한 자가 ... 되었다” 했다. 구리지가 이에 기뻐 말하기를 “신은 이로 부터 더욱 힘써 ...” 했다. 정이 더욱 무르익었다. 옥진궁주는 ... 서로 혼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금진은 ... 당하여 ... . 사다함은 ... . 구리지는 장군 주령珠玲을 따라 출정하여 독산에서 죽었다.  
처음에 구리지에게는 용양신龍陽臣인 설성薛成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모습이 아름답고 교태를 잘 지어 보였다. 구리지가 출정하여 자리를 비우자, 금진과 정을 통하여 설원랑薛原郎을 낳았다. 동륜태자가 탄생했을 때, 사도왕후가 금진을 불러 유모로 삼았다. 이로 인하여 사다함 형제도 또한 궁중에서 자랐다. 그때 왕의 나이가 아직 한창 때였는데 태후가 빈공嬪 供을 허락하지 않았다. 왕도 또한 사도와 정이 각별하여 아직 다른 사람을 총애하지 않았다. 이에 이르러 사도는 산후 3개월간 왕과 관계를 하지 않았다. 금진은 이에 교태를 보이자



#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상담 및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가슴, 눈, 코, 안면윤곽, 지방성형, 피부클리닉 전문

## S프로포즈 성형외과

"오늘보다 더 아름다워질 당신을 위한 프로포즈! 프로의 프로포즈는 다릅니다"



◀ 대표원장 김자욱

성형외과 주부의 필 의사이자  
미국 뉴욕대학교병원  
성형외과 두개안악상대 교수  
미국 Mount Sinai Eye, Ear & Throat  
Hospital 유방, 지방, 체형성형 안수  
전성형, 고성형, 안면윤곽



◀ 원장 정현석

성형외과 전문의  
전 분당차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전 분당차병원 성형외과 외래교수  
전 강남성심 성형외과 원장

PROPOSE  
눈성형 클리닉  
11월 25일 11월 26일 11월 27일

고국방문 성형 할인 이벤트!

선명한 눈매

매몰 : 110만원 → **88만원**  
절개 : 154만원 → **132만원**

PROPOSE  
코성형 클리닉  
11월 25일 11월 26일 11월 27일

오뎅한 콧날

콧대+코끝 : 363만원 → **308만원**

PROPOSE  
가슴성형 클리닉  
11월 25일 11월 26일 11월 27일

당당한 가슴

확대 : 630만원 → **605만원**  
유방윤보형술 : 770만원 → **660만원**  
축소 : 830만원 → **770만원**



눈, 코, 동안, 지방, 가슴, 안면윤곽, 안티에이징 전문

## 케이뷰라인 성형외과

"케이뷰라인 성형외과는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위해 시술항목별 진단, 수술, 수술 후 관리까지 1:1 개인별 맞춤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표원장 구본상

집안 성형외과 원장  
선이교은 성형외과 원장  
서울대병원 전임의  
동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대안 이용리과의학 정회원  
한국 미용외과의학회 정회원  
대한 미용외과 지리학 장회원

고국방문  
성형 할인  
이벤트!

눈썹거상  
187만원  
→  
**154만원**

상안검  
187만원  
→  
**154만원**

하안검+지방제거  
196만원  
→  
**154만원**

실리프팅  
365만원  
→  
**264만원**

안면거상  
660만원  
→  
**550만원**

안면거상+목거상  
830만원  
→  
**660만원**



부가세 관련 정보

2016년 4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외국인에 성형, 미용의 목적으로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진행한 경우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부가세는 출국전에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 무료 전화(Call for Free) ★  
1-844-DO HURAM (1-844-364-8726)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미국내 상담문의  
보스톤코리아  
Tel. 617-955-9112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 "감사하며 사는 일, 말처럼 그리 쉬운가?"

-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XXI -

감사의 날, 추수 감사절이다. 항상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복 받은 사람들이다. 생을 긍정적으로 보며 산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역지로 감사를 해도 사람은 변한다. 감사는 행복의 절대적인 열쇠이다. 수많은 심리학자들은 '감사의 힘'을 증명했다. 13세가 되도록 어린 아이처럼 행동하는 딸이 너무나 걱정되는 어머니 클라이언트가 있었다. 테라피를 통해, 여태껏 자신이 원하는 딸로 만들려고 자신이 딸에게 가식의 감사를 했음을 발견했다. 그 후 딸이 하루 생활 속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며 보여주는 좋은 행동 3가지씩 발견하게 했고, 어머니의 3가지 행동의 감사한 마음을 하루에 한 번씩 표현하게 했다. 어머니는 갑자기 말로 하는 것이 겉연쩍어 취침을 하기 전 딸에게 그날 하루의 3가지의 감사한 행동을 텍스트로 보냈다. 그 효과는 단 2주 만에 나타났다. 딸을 보는 어머니의 눈이 변하기 시작했고, '칭찬은 고래도 변하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어머니의 진정된 감사는 딸의 행동을 변화시켰다.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일이 행복으로 가는 '왕도'임을 아주 잘 안다.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다. 그 누구보다 모든 거 다 알고, 감사하고 살고 싶다. 그런데 안 되는 걸 어쩌란 말이냐? 감사를 하며 살고 싶어도 감사를 못하며 사는 사람 앞에서 감사한 마음 3가지씩 적으면 감사해진다고 이야기 하면 뺨 맞을 지도 모른다. 아예 뺨이라도 때리며 화를 낸다면 다행이다. 가슴에 맺힌 상처 때문에 화를 낼 기력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다. 집중팔구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당한 것이다. 그 아픔이 얼마나 깊고, 쓰라리고, 빠져나가기 힘든 일인지, 당해보면 안다. 도

스토엠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한 구절이 생각한다. "나는 온 인류를 사랑할 수 있다. 그들 모두를 나는 사랑한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 그녀에게 한 잘못은 내가 아무리 용서하려 해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어려운 일이다."

배신감은 내가 너무나 믿었던 '단 한 사람', 나 자신보다 더 많이 사랑했던 '단 한 사람'에게서 당한 배반의 감정이다. 배신은 다른 이의 영혼을 살해할 수 있는 잔혹한 행위이고, 마음을 겁탈하며 유린하는 정신학대이다. 어떤 배신자는 약해지도록 약해진 피해자의 마음마저 난도질을 하여, 하소연조차 할 수 없게 만들며, 자신의 영혼 살인 행위를 철저히 은닉하고 반복한다. 피해자 마음의 깊은 상처는 마음 안에 있고, 겉으로 보이지 않아,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조차 없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그나마 죽을 힘을 다해 자신의 억울함을 다른 이들에게 호소해도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며 애처로워 할지라도, 점차 귀찮아 하기 시작하며 슬슬 피하기 때문이다. 결국 피해자는 모든 것을 철저히 혼자서 짊어지고 살게 된다. 배신감이 자신의 생을 어둠의 긴 터널로 빠지게 하는 것이다. 마음이 너무 아파, 겨우 힘을 내어 걸음을 떼어보지만, 걸어도 걸어도 빛이 안 보이고, 어둠에 빠져 만 가는 것 같다.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러한 순간, 희망을 갖고 터널을 빠져나가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배신을 용서하는 일은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신'

만 할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짐승보다 못한 이 배신자를 용서 할 필요는 없다.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배신자를 용서하기보다 자신의 상처를 제대로 바라보고, 아파해야 한다. 그 '단 한 사람'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용서하는 것을 포기해야만 빛이 보인다. 그들은 사과할 줄 모르는 썩은 사과이다. 썩은 사과가 상자 안에 있으면 다른 사과마저 썩게 하지 않는가?

이렇게 배신을 하면서도 자책을 느끼지 않거나, 자신이 배신자인줄을 모르는 이 썩은 사과들은 '소시오패스(Sociopath)' 또는 '사이코패스(Psychopath)'의 인격 장애일 확률이 무척 높다.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모두 잠재된 불안심리가 환경에 의해 발현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이다.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소가 결합하여 공감 능력에 장애자인 면에 반해, 소시오패스는 환경적 요소나 주변의 스트레스로 인해 변질된 사회 부적응자이다. 사이코패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소시오패스다.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데 아주 능숙해서 사람과 주변환경을 최대한 활용할 줄 뿐 아니라 양의 말을 쓴 대처럼 순수한 사람들의 영혼을 약탈하는데 천재적이기 때문이다. 소시오패스들 중에는 사회에서 큰 능력을 발휘하는 성공한 샅들이 많다(공정성, 경기대 범죄 심리학 교수).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심리조정을 잘 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하는 삶이나 상황, 목적에 따라 가면을 바꾸며 자신의 실제 모습을 감추는 일을 아주 잘한다. 소시오패스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가면 뒤의 모습은 자신의 삶에 더이

상 이익이 오지 않거나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 때만 나타난다.

필요가 없으면 버린다. 자신을 그토록 믿은 사람이라도 예외는 없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나쁜 짓을 저질러도 된다.

자신에게 이익이 오는 한 그들의 가족, 친구, 회사동료, 인생의 동반자에게조차 그들의 진짜 정체를 절대 드러내지 않는다. 소시오패스의 애정은 허울뿐이다. 만약 소시오패스가 그 관계에 가치를 두는 것은 그 상대를 자신의 소유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첼 프티콜랭은 자신의 책 '나는 왜 그에게 휘둘리는가?'를 통해 감춰진 심리 조정자를 이야기 한다. 교묘하게 사람을 무시하는 교양넘치는 심리 조종자, 주위 사람들이 늘 두려워하는 독재적인 심리 조종자, 상대방에게 빚진 마음을 갖게 하는 무수 일이라도 해줄 것처럼 나서는 이타주의적 심리 조종자, 수줍음을 가장해 자신이 유별한 갈등을 즐기는 수줍음 많은 심리 조종자, 상대를 감탄하게 만들며 자신의 특유의 매력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신의 매력과 친철함을 앞세우는 매혹적인 심리 조정자들을 말한다.

소시오패스에게 배반을 당하여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움이 마음에 부글거리면 생의 감사함을 느끼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제 추수감사절을 통해, 나에게 짐승보다 못한 배반을 했던 그 '단 한 사람'을 깨끗히 버리자. 그를 용서하려 애를 쓰기 보다 자신을 먼저 용서하자. 그래야 빛이 보인다. 생의 감사를 느낄 수 있다. 잊지 말자! 자신이 행복해 질 권리가 있음을...

HANKOOK AUTOBODY INC.


978.664.2321


**한국말 문의 전화 가능!!**



- \* 무료 견적서
- \* Auto body 사고 수리 및 페인트
- \* Insurance 수리 및 Deductible 세이브
- \* 프레임 스트레이너 머신 및 페인부스 완비








영업 시간

M-F: 8:00~5:00  
SAT: 8:00~12:00

- 경력 -

- \* 현대 자동차 서비스 공채 사원(대방동 남부 사업소 판금 도장부 근무)
- \* Herb chamber 브레인트리 콜리즌 센터 근무(M-benz, Bmw, Mini, Lexus, Ford)
- \* Bernadi Boston body shop 근무 (Honda, Acura, Audi, Toyota)
- \* Tansky Toyota 근무 (모든 Toyota 차량)
- \* Calvin's auto body 운영
- 26년 Auto body work!!



tv. Since 2008  
2008년부터 방송된 한국방송을 서비스할  
티브oplay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파리는 동시서비스에 우리 특산

한국어권지 한국방송 및 파산영화  
내 맘대로 즐기는 합법 IPTV **tboplay**

합법 한국방송 티보플레이에서  
명품 교양채널 **MBN**을  
실시간으로 만난다  
이제 **MBN**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티보에서 시청하세요



김주하앵커의  
**MBN 뉴스8**  
진심을 담아 진심을 전하는 뉴스



# MBN 런칭 기념 가입할인 혜택!

• 신규가입 고객 \$39.99/월 → **\$29.99/월**

• 케이블 TV에서 티보플레이로  
전환하시는 분께 드리는 혜택!

**\$29.99/월** + 1달 추가 무료 이용  
+ 1년간 유료영화, 성인영화 무료

\*케이블 전환 고객님은 전달요금 빌링지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PLAY**  
**TBO**  
티브oplay

KBS MBC SBS tvN OCN JTBC MBN O'live Xtv

티브oplay 지역별 가입안내

- 서울 02-253-855-1004 대구주 054-281-408-257-2525 샌디에고 (Ace Tech) 619-318-4182 LA 213-999-1235
- 시애틀 (교차로) 847-901-4112 글라스뉴스 (News Korea) 812-347-9111 샌안토니오 (교차로) 210-445-1525 앨버트스 (교차로) 200-768-1743
- 이탈리안 (SNC Tech LLC) 678-684-6514 오하이오 (교차로) 287-230-7773 비자니아 (VNU Computer) 709-942-6822
- 보스턴 (The Boston Korea) 617-955-9112 NY 교차로 (Yochan) 212-855-8635 New York, New Jersey 212-488-1072
- 트루노 (교차로) 905-832-3333 밴쿠버 (교차로) 604-420-1088

상당할 가입문의 무료전화  
**617-955-9112**  
LA 가입문의 213-999-7090  
본사주소 3435 Wilshire Blvd #2915, LA, CA 90010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57)

아무것도 하지 않는 투자(Nothing)

“주식에 고수라고 불리는 투자 전문가들이 모여서 유망한 투자종목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으로 일반 투자자들은 막연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성적이 좋았던 뮤추얼 펀드에 직접 투자하기도 하고 재정설계사를 고용하여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당연한 투자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지 말고 인덱스 펀드에 투자할 것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네바다 주의 은퇴자금은 \$35 Billion입니다. \*참고로 \$1 Billion은 \$1,000 Million입니다. 이 많은 돈을 잘 투자해야 합니다. 머리가 똑똑(?)한 투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운영할 것으로 일반 투자자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상상 밖의 일입니다. 단 한 명인 펀드매니저가 이렇게 많은 은퇴자산을 인덱스펀드에 100% 투자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신문이 말합니다.

네바다 주 정부 은퇴자금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 스티브 에드먼스(Steve Edmundson)는 작고 초라한 사무실에서 \$35 Billion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

종목을 분석해주는 주식분석가(Stock Analyst)도 한 명도 없습니다.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컴퓨터 모니터도 없습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인한 투자 준비? No.

오일 가격에 따른 투자? No.

이자율 변화에 따른 투자? No.

브렉시트로 주식시장이 600포인트가 하락해도 아침 8시에 출근하여 정확하게 오후 5시에 퇴근합니다. 미국의 금융기관(Wall Street)에서 \$35 Billion이라는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는 적어도 몇 밀리언을 봉급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네바다 주의 펀드 매니저가 받는 봉급은 한 해에 고작 \$127,121.75입니다. 봉급을 적게 받는 이유는 “수익률이 형편없기에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을 살펴봅시다.

네바다 펀드매니저는 투자 종목을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주식분석가도 없고 투자 종목을 자주 매매하지 않아도 다른 주 정부의 은퇴자금과 비교했을 때 수익률은 최고의 성적을 내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한

해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난 3년, 5년, 그리고 10년간의 수익률을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익률입니다. (What Does Nevada's \$35 Billion Fund Manager Do All Day? Nothing, WSJ, Oct. 19, 2016).

미국에서 가장 큰 은퇴자금은 캘리포니아 은퇴자금(Calpers)으로 규모가 \$300 Billion입니다. 과거 켈퍼스는 소위 주식전문가라는 헤지펀드 등의 펀드매니저를 주로 고용하여 은퇴자금을 운용했습니다. 이러한 투자 대부분은 투자가 복잡하고 불투명하고 위험성이 많으면서 오히려 투자비용이 많았습니다. 투자에 가장 중요한 수익률도 인덱스 펀드에 비교해서 기대에 훨씬 떨어진 결과를 반복했습니다. 켈퍼스를 운영하는 펀드매니저는 네바다 은퇴자금 운용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켈퍼스는 최근 투자전문가들이 운영했던 자금 반 이상을 인덱스 펀드로 전향했습니다. 뉴욕 주 정부의 은퇴자금도 헤지펀드 투자에서 인덱스 펀드로 바꾸었습니다. 일리노이 주의 은퇴자금도 인덱스 펀드 투자로 전

향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미국의 전체 은퇴자금이 패시브 투자(Passive Investment)인 인덱스 투자로 대부분 변형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신문은 말합니다.

거대한 투자 자금을 직접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도 인덱스펀드 수익률에 비교해서 떨어집니다. 하물며 재정설계사는 펀드매니저도 아닙니다. 재정설계사가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인덱스 펀드가 아닌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정설계사는 본인이 속한 금융회사에 돈을 벌어야 하고 본인들도 돈을 벌어야 합니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고객의 이익은 당연히 맨 나중입니다.

투자 위험성, 투자 비용, 세금 효율성, 투자 수익률 모든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인덱스 펀드의 유리한 점을 지난 20여 년 동안 설명했습니다. 패시브 투자인 인덱스펀드의 유리한 점을 최근에야 여러 방송 매체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파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괴링의 버미어 모조품

가치는 감성적 믿음의 결과일까? 이성적 두뇌의 결과일까? 2차 세계대전 당시 허먼 괴링은 나치 독일에서 히틀러 다음의 2인자였다. 원하던 것은 모두 소유했던 괴링에게도 한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다. '진주 귀걸이의 여인'으로도 유명한 버미어(Vermeer)의 그림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히틀러는 두 점이나 소유했는데 자칭 예술 애호가라는 자신은 한 점도 없었다. 결국 네덜란드의 미그린이라는 예술품 브러커를 통해서 천만불을 주고 한 점을 구입했다. 전쟁이 끝난후 미그린은 국보급 예술품을 적에게 판매한 반역자로 고소당해서 사형선고의 재판을 받게 된다. 이때 미그린은 놀라운 사실을 발표한다. 허먼 괴링에게 판 그림은 자신이 그린 모조품이었다고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제로 모조품을 그려서 이를 확인시켜주었다. 이로 인해 그는 반역자에서 영웅으로 위상을 바꾸었다. 문제는 이

소식을 전해들은 허먼 괴링이 독일 패망보다도 더 좌절했다고 한다.

스타디베리우스는 현악기 최고의 명품이다. 스타디베리우스 비올라가 소더비에에서 4천 5백만불에 경매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웬만한 주택 10채의 가격이다. 이는 현악기 장인 스타디베리우스가 특별한 방법으로 특수재질의 비법으로 악기를 제조했고 그가 죽은 후에는 아무도 그 소리를 내지 못하지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 몇몇 학자들이 연주자들에게 블라인드 테스트(Blind Test)를 실험했다. 연주자들은 볼수없는 상태에서 소리만으로 악기를 연주했는데 의외로 스타디베리우스가 최저 점수는 받았다. 현대에 제조된 악기가 더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우리는 비슷한 예를 프랑스 명품 와인과 캘리포니아 와인의 블라인드 테스트, 80년대에 유행했던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품

의 평가는 편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이 명품을 찾는 이유는 타인들에게 위상, 품위, 존경을 위해서라는 기존학설과는 달리 유전적, 동물학적으로 자기중심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싸구려 와인을 마시게 하면서 최고의 와인이라고 설명을 하면, 두뇌가 즐거움과 행복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CT촬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최고의 명가 와인을 싸구려 수퍼마켓 와인이라고 마시게 하면 즐거움은 두뇌에서 발견할 수가 없다.

주택은 절대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 감정가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가격을 측정하는 것이지만 어느 개인에게 받아들여지는 절대가치는 아니다. 30년을 살아서 정든 집에 쉼터가 느끼는 가치는 그집을 구입하려고 찾아온 바이어가 느끼는 가치와는 많이 차이가 난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졌기에 상대의 입장에서 완벽히 이

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종종 비즈니스 거래인 주택매매가 감정적 거래로 변하는 것이다. 부동산 에이전트의 가장 크고 힘든 임무는 주택매매를 성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인 가치평가를 이성적인 가치평가로 승격시키는 것이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성기주 변호사 칼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i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법 새 개정안 (2016년 11월 18일)

지난 11월 18일 오바마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취업이민과 비자에 관련된 여러가지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번 DACA 등과 같이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에 대한 정부의 해석을 다시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공교롭게 발표 시기가 새로운 공화당 대통령의 당선 직후라 다른 오해를 받을 여지는 있겠지만 이러한 행정명령에 대한 준비는 이미 작년부터 시작됐고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치느라 지금에야 개정이 완성된 것인지 정치적인 이유는 아닌 듯 합니다.

이번 개정은 주로 취업이민과 비자에서의 복잡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 내용면에서 쉽게 이해하기 힘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들의 발표일이 2017년 1월 17일이니 앞으로 계속해서 이 개정안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과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는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 중 중요한 세가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현행법 (특히 AC21 와 ACWIA로 불리는 취업이민과 비자와 관련된 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발표된 새로운 법안을 보면 현행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하고 해당되는 상황들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기대

했던 H-1B 쿼터 수의 증가 등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정은 없었습니다.

두번째는 AC21 과 ACWIA 에 대한 몇가지 개정입니다. 여기에는 반가운 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 Retention of Employment-based Immigrant Visa Petition: 먼저 취업이민 신청서인 I-140 이 승인되고 180일 이상 지났는데도 우선 순위 날짜(Priority date) 때문에 다음 단계인 I-485 또는 대사관 영주권 수속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엔 고용주 회사나 개인(흔히 스폰서로 불리는 영주권을 신청해 주는 회사나 개인)이 영주권 신청을 포기해도 피고용인이 계속 이 신청서를 유지할 수 있게 개정됐습니다. 또한 고용인 회사나 개인이 비지니스를 포기한 경우에도 계속 신청서를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 Employment Authorization in Compelling Circumstances: 기존에는 I-140 이 승인되고 다음단계인 I-485 로 넘어가기 전에는 EAD(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즉, I-140 신청만으로는 노동허가의 자격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H-1B, L-1, O-1 으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I-140 를 신청하고 승인된 경우엔 정당한 사유를 밝히는 자에 한해 I-140을 근거로도 노동허가

를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H, L 또는 O 비자가 I-140 승인 후 만료되는 분들에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10 Day Grace Period: E-1, E-2, E-3, L-1 그리고 TN 소지자들에게는 앞으로 두번째 10일 간의 Grace Period 가 부여됩니다. 첫 번째 Grace Period는 신분 유효일로 부터 10일 전에 미국에 입국하실 있고 두번째 Grace Period 는 신분 만료일로 부터 10일간입니다. 이 기간 다른 신분으로의 신분 변경도 가능해졌습니다.

- 60 Day Grace Period: 현행법상 60일의 Grace Period 는 학생비자 소지자들만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E-1, E-2, E-3, H-1B, L-1, O-1 그리고 TN 소지자들에게도 60일간의 Grace Period 가 주어집니다.

- H-1B Licensing: 현행법은 자격증이 요구되는 직종의 H-1B 신청에서 신청자는 반드시 신청일을 기준으로 그 자격증을 취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신청일 당시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그 이유를 증명할 서류와 곧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조건부로 H-1B 를 승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EAD(노동허가)에 대한 개정입니다. 다음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노동허가가 연장됩니다. 우선 노동허가 연장신청서가 처음 노동허가와 동일 조건이어야 합니다. 즉 동일한 이유로 노동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은 연장신청이 이전 노동허가가 만료되기 전에 신청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노동허가의 자격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연장 후에 신분이 비관다툼지 노동허가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면 이 자격조건에 위배됩니다. 위 세가지 조건에 맞는 분들은 기존의 노동허가가 만료되도 연장 신청과 동시에(연장신청의 결과를 기다릴 필요없이) 계속해서 합법적인 노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노동허가 신청서를 90일 안에 승인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시 노동허가서를 발급하는 제도는 폐기됐습니다. 90일 승인을 폐기한 이유는 90일이라는 시간에 쫓겨 자격조건이 없거나 가짜 신청서들에 대해서도 승인을 하는 폐단을 막고 신청자들에 대한 범죄 등의 조사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처음 신청 (Initial Application) 의 심사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후속 발표가 나오는데로 계속 갱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칼럼리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소피아 선생님의 지난 칼럼은 mywiseprep.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부패의 먹이사슬, 트위드 링 스캔들

140년 전 오늘인 1876년 11월 23일, 윌리엄 트위드 (William M. Tweed)가 스페인 경찰 당국에 의해 미국으로 인계되었다.

1850년대 말에서 1870년대 초반까지 민주당의 뉴욕 지구당(Political Machine)인 태머니홀 (Tammany Hall)의 지도자였던 트위드는 보통 "Boss Tweed" 로 불리는 강력한 실세 정치인이었다. 지금은 폴리테크컬 머신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지만, 남북전쟁 직후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뉴욕의 태머니 홀, 필라델피아의 공화당 머신, 시카고의 민주당 머신 등 대도시의 폴리테크컬 머신들이 그 지역의 정치와 선거를 좌지우지하고 또 연방 정부에도 (부정적인 의미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조직이다. 트위드가 이끌었던 뉴욕의 태머니 홀은 19세기 후반부 뉴욕시와 뉴욕주의 정치를 장악한 막강한 권력이었다.

트위드는 1852년 미국 하원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후, 1858년 뉴욕 카운티 감리위원으로 그리고 태머니 홀의 우두머리로 승승장구했다. 1867년 뉴욕 상원의원에 당선되었는데, 이때는 비리 사업가의 대명사인 제이 굴드와 빅 짐 피스크의 주가 조작을 '합법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이 이리 철도의 운영권을 취득하도록 도왔다고 한다. 그대가로 트위드는 거액의 이리(Erie) 철도 주식을 손에 넣음으로써 막대한 부를 쌓았다. 트위드의 영향력이 가장 피크였을 당시 그는 뉴욕시 부동산

부자 중 3위였고, 이리 철도 Tenth National Bank, 뉴욕 인쇄 회사의 이사였으며 메트로 폴리탄 호텔 등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전직 소방관으로 출발해 이처럼 승승장구했던 트위드가 누렸던 '권력' 의 원천은 민주당의 각종 직책과 선거 임후보자의 지명권을 가진 태머니 홀에 있었다. 폴리테크컬 머신의 핵심은 대도시 유권자들을 조직하고 움직일 수 있는 선거 장악력이다. 트위드의 탁월한 능력은 바로 충성 유권자를 만드는 데 있었다. 그렇다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던 트위드의 유권자 장악,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무엇보다도 먼저 트위드는 사실 직업 창출과 소득 분배를 핵심으로 하는 (창조경제)의 달인이었다. 가령 트위드는 건축이나 도시설비 등의 뉴욕시가 수주하는 각종 사업 계약에 관여를 했다. 업자에게서는 뇌물을 받고 공사를 따게 해주고, 또 공사 액수를 천문학적으로 부풀리도록 돕는 한편, 불필요한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횡령하거나 부실 공사를 눈감아 주면서 뇌물을 착복했다. 때로는 사업을 수주하게 하는 댓가로 사업체의 이권을 나눠 가지기도 했다. 심지어 지출하지 않은 사업비도 가져 전표를 통해 태머니의 배를 채웠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유권자들 (주로 신규 이민자와 빈민들)에게 '일자리' 라는 명목으로 허드렛일을 만들어 환심을 사고, 공공연하게 유권자들의 표를 샀다. 그들에게 만들어진

'일자리' 는 결국 득표력으로 돌아왔고 그렇게 얻은 득표력은 다시 트위드가 마음껏 전횡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 또한 트위드가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 쌓았던 재산은 태머니 홀 내의 측근을 관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본이 되기도 했다. 그의 사무실은 항상 청탁자로 넘쳐났다고 한다. 트위드를 통하면 무엇이든 이루어졌다. 물론 트위드는 그 모든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단단히 챙겼겠으나, 뿐만 아니다. 훗날 그의 횡령이 드러나도 뒷탈이 없도록 공무원과 경찰들에게 그리고 기자들에게 뇌물을 썼다. 그리하여 트위드의 수 많은 스캔들은 가장 하층민에서부터 사업가들과 정치인들까지 수많은 사람이 '부패와 범죄의 고리' 에 연결된 '트위드 링' 이 되었다.

권력이 커질 수록 트위드는 대담해지고 뻔뻔해졌다. 트위드와 그의 측근들이 신나게 해먹는 동안 뉴욕시의 재정은 파탄이 났다. (1868년 3천 6백만 달러였던 뉴욕의 채무는 1870년 1억달러가 늘어난 1억 3천 6백만 달러가 되었다.)

결국 납세자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뉴욕시 재정을 제 금고 불리기 위해 아낌없이 착복했던 트위드의 사기와 전횡이 1871년 뉴욕시 법원 리모델링 공사에서 트위드 일당이 저지른 횡령이 뉴욕타임즈 지면에 보도되면서 서서히 트위드링의 실체가 대중에게 알려졌다. (

애초에 트위드의 '범죄' 에 가담했으나 자신에게 돌아온 몫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데 대한 불만을 가졌던 누군가가 제보했다고 한다.) 한편 뉴욕 하프스 위클리 에 거의 매일 폭로된 토머스 내스트 (Thomas Nast)의 만평도 트위드 링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데에 큰 공헌을 했다.

언론의 비판이 잠잠해지기를 바라면서 트위드의 일당은 또다른 범죄를 저지른다. 트위드는 재산을 가족이름으로 이전했고, 또한 뉴욕타임즈와 만평가 내스트에게 사건을 다루지 않는 대가로 다시 거액의 뇌물을 제안했다. (물론 언론이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백만불의 보석으로 잠시 풀려났던 트위드는 재판에 회부되었고, 결국 현재 가치로 25만불 가량의 벌금과 함께 12년 형에 처해졌는데, 그가 저지른 부패-범죄에 비해서는 새털같은 형량이었겠으나 이나마도 나중에 1년으로 감형이 되었다. 그러나 1873년 트위드는 또 다른 사기,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갇혔다. 이 파란만장한 사내는 1875년 탈옥을 감행, 쿠비를 거쳐 스페인으로 달아났다. 결국 1876년 스페인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지만, 다시 감옥으로 되돌려진 트위드는 1878년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부정부패의 화신' 으로 이름이 남게 되었다. 부패는 부패를 먹고 자란다는 교훈만 남긴채.

# SONGLAWFIRM

고객이 신뢰하는 법률 브랜드  
**송동호 종합로펌**

songlawfirm.com



송동호 대표 변호사

법률업은 일반 비즈니스와 달리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변호사의 판단 하나는 고객 케이스에 신의 한수가 되기도 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변호사들은 신중함의 중요성을 늘 생각합니다.  
 고객 여러분이 저희의 신중함을 발견하고 신뢰하게 되기를,  
 케이스 하나 하나에 강인 정신으로 다가갑니다.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브랜드, 송동호 종합로펌은  
 오늘도 고객의 케이스를 신중하게 고민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뉴저지지사 소속 변호사 및 Summer Associates

### 기업 고객

- 국제법
- 근용법
- 노동 및 고용법
- 보험회사 관련 소송
- 부동산
- 상업 및 M&A
- 소송
- 이민법
- 업대인, 업저인 관계법
- 지식 재산법
- 프랜차이즈법

### 개인 고객

- 가정법
- 노동 및 고용법
- 부동산
- 사고 상해
- 성법
- 세금, 상속, 유언
- 소송
- 이민법
- 업대인, 업저인 관계법
- 지식 재산법
- 다국, 지역 법원 관련 업무
- 파산
- 형법

T | 617.489.1327    MA@SONGLAWFIRM.COM

MA OFFICE | 125 Cambridge Park Drive,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 songlawfirm1
- songlawfirm LLC
- songlawfirm

사업의 시작은

# Lee Associates

# 이경해 부동산

##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에 전문,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 런드롬렛(Laundromat) 상물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킹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북서쪽 투자상가건물 11유닛, 연수입 \$110,000

워터아운/월담 드롭오프 연매상 \$150,000 좋은 렌트

보스톤 남쪽 컨비니언스 + 로터리, 연매상 \$900,000 + 로터리 커미션(\$70,000)

체스넛힐 드롭오프, 연매상 \$250,000

보스톤 서쪽 런드롬렛,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다운타운 보스톤 컨비니언스 + 델리, 연매상 \$650,000  
Beer&Wine 면허증, 주방 확장 가능

뉴햄프셔 동양식당 + 플리커, 연매상 \$30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드롭오프, 연매상 \$155,000 좋은 매매가격 \$65,000

보스톤 서쪽 런드롬렛 연매상 \$159,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케이프코드 동양식당 연매상 \$160,000 높은 순수익

보스톤 서쪽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셔츠유닛, 연매상 \$99,000 좋은 위치

보스톤 서쪽 런드롬렛 연매상 \$236,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동양식당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 대학가 근처, 연매상 \$450,000

네일살롱 여러장소 연매상 \$160,000 - \$800,000

보스톤 서쪽 드롭스토어 2곳, 연매상 \$300,000 과 \$25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롬렛 연매상 \$110,000 18년만에 은퇴, 매매가격 \$35,000

여러가지 컨비니언스 스토어 소유, 문의바람

보스톤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보스톤 Full Plant+드롭, 연매상 \$71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193,000 고급동네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800,000 Beer&Wine 면허증소지, 로터리 (복권)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보스톤 북쪽 런드롬렛+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 보스톤 교육원

###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권.험적 입학 담당자 상담

###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 아카데믹 프로그램

SSAT/SAT I (New)  
SAT Subjects/AP 수업  
최고 전문강사들의 수업  
실전문제 중심수업  
주말수업(상시참여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가능

전과목 개인과의 가능  
오전기간에 걸쳐 학생과 학부모님들로부터  
인정받은 최고의 강사들이 수업 합니다.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각종 경시대회 준비  
AMC, National Spanish/French/  
Latin Exam

### 2016 Thanksgiving 프로그램 (마감일:11월 11일)

- 기간: 11월 11일(토요일) - 27일(일요일)
- SSAT/SAT I Class: 12월 1월 시험 대비 집중 프로그램, 유능 강사진, 실전 문제 풀이 중심 및 꼼꼼한 감독, 각 과목별 난이도에 따른 시간 배분
- SAT II Subject Class: Math IIC, Physics, Chemistry
- AP 및 경시대회 준비 개인 수업



	SSAT For Junior High School Students	SAT For High School Students
8:00-8:30	단어 test	단어 test
8:30-12:30	Class(reading/verbal)	SAT Reading Class
12:30-1:30	점심식사	점심식사
1:30-3:30	Writing Workshop	BAT Writing & Language Class
4:00-6:00	TOEFL Class	BAT 2 Subject Class
6:00-7:00	저녁식사	저녁식사
7:00-8:00	Private tutoring/study hall	Private tutoring/study hall
8:00-10:00	귀가	귀가

상담전화: 339.234.5255~7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bostonedu.org